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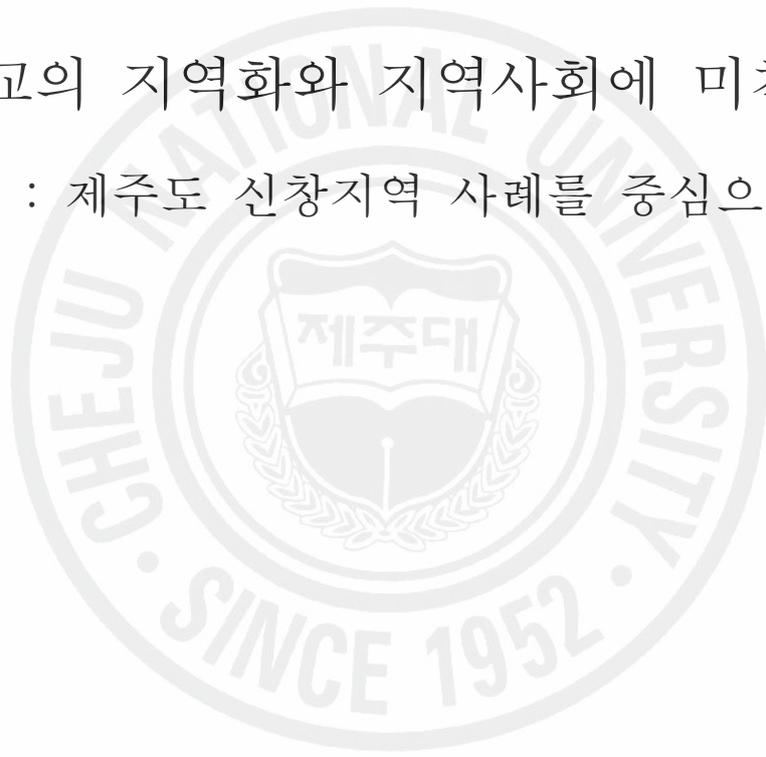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천주교의 지역화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 제주도 신창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金奎利

2007年 8月

천주교의 지역화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 제주도 신창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廉 美 炅

金 奎 利

이 논문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8月

金奎利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김 항 원 印

委 員 정 진 현 印

委 員 엄 미 경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7年 8月

<국문초록>

천주교의 지역화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 제주도 신창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金 奎 利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社會教育專攻

指導教授 廉 美 炅

제주도 서부 지역에 위치한 신창지역은 1935년 공소 설립을 시작으로 1952년 제주도에 세 번째로 본당이 설립되었다. 이후 천주교가 정착하면서 지역의 신자수는 전체 지역 인구의 60~70%에 달한 시기도 있었고, 신창지역에서 배출된 신부와 수도자들도 지역규모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창지역을 중심으로 천주교의 지역화와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심층면접(interview)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신창성당 용수공소에 박 수산나 할머니를 대상으로 구술 생애사(oral life history) 방법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먼저 천주교가 지역에 정착한 뒤 교세가 크게 확대 될 수 있었던 배경을 보면 첫째, 시대적 요인으로, 1950~60년대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구호물자가 성당을 통해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성당으로 집결하게 되었고, 성당은 지역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1970년대 미신행위를 금하던 정부시책 등에 의해 교세가 확장되었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의식적인 부분으로서, 성직자 또는 천주교에 대한 좋은 인식은 신자 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고, 주민 대다수가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 주민들을 성당에 모이게 하는 지역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아울러 사제·수도자의 배출은 천주교 교세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다음으로 천주교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주민복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우선 천주교는 지역주민들의 의식개선, 계몽과 주민화합 등 지역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하였다. 둘째, 유치원의 개원으로 지역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가져왔다. 셋째, 구호물품 등에 의한 구민활동,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공간으로 성당 활용, 지역주민들의 장례식장 등 성당시설 활용기회의 제공,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 사업 등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최근 신창성당의 교세를 보면, 신창지역 전체 인구의 40%가 천주교 신자로 조사되어 교세는 과거보다 많이 축소되었지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하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들 대부분 나이가 많은 연령층이 많고, 도시화로 인해 지역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 젊은 신자들이 거의 없어 성당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신창성당만이 아니라 전국 농어촌지역의 성당에서 겪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성당에서의 사목의 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3. 논문의 구성	6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7
1. 선행연구의 검토	7
2. 천주교의 전래와 성장	8
3. 분석틀	19
III. 신창지역에서 천주교의 성장과 지역화	21
1. 초창기 천주교의 정착 (1935~한국전쟁기)	21
2. 천주교 교세의 확장 (한국전쟁기~1990)	23
3. 신창 지역 교세의 약화 (1991 이후)	39
IV. 신창지역에서 천주교의 영향	45
1.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	45
2. 주민교육에 기여	53
3. 주민생활의 편의 도모	55
V. 결론	61
참고문헌	64
ABSTRACT	68
부록	70

<표 목차>

<표 1> 지역별 천주교 신자수의 비교.....	2
<표 2> 신창성당 관할지역 인구수와 신자수	3
<표 3> 천주교의 20세기 한국사회발전 기여도	12
<표 4> 한국천주교회 현황	13
<표 5> 한국천주교 교구 현황	13
<표 6> 제주도의 천주교 확산.....	17
<표 7> 제주교구 교세 현황	18
<표 8> 제주 교회의 교세 현황 : 1951~1952년	24
<표 9> 신창성당 교세 변모 현황.....	40
<표 10> 신창성당 연령별 신자수	41
<표 11> 제주시 한경면 종교 현황	47
<표 12> 천주교가 사회복지 발전에 가장 기여한 시기.....	56

<사진 목차>

<사진 1> 옛 성전 모습	27
<사진 2> 양 하워드 신부 송별기념.....	28
<사진 3> 1958년 부활 대축일 세례식이 끝나고	29
<사진 4> 새 성전 봉헌식	39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 된지는 200여 년, 제주도에 전래 된지는 100여 년이 되었다. 이러한 천주교의 전래와 교세 확장으로 인하여 천주교는 지역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제주도 서부 지역에 위치한 한경면 신창리와 그 주변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천주교의 영향이 크다. 신창 지역은 1845년 김대건 신부의 용수포구 표착 등으로 제주도 천주교회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1935년 공소 설립을 시작으로 1952년 제주도에 세 번째로 본당이 설립되었으며, 이후 천주교가 정착하면서 지역 안의 최대 신자가 전체 지역 인구의 60~70% 정도였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신부와 수도자들도 지역의 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많을 배출되었을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신창 지역에서 천주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천주교의 교세 확장은 많은 수의 지역주민을 더욱 성당에 집결시킴으로써 신창 지역사회에도 여러모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신창성당 관할 지역 천주교의 지역화와 성장과정, 그리고 전래 과정에서 천주교와 지역 사회와의 연계,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은 거의 없고 단편적인 본당사 연구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연구는 타 지역에 비하여 교세가 강한 신창성당 관할 지역에서 천주교의 성장과 지역화, 그리고 지역화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제주도 한경면 신창리에 위치한 신창성당과

그 관할지역이다. 신창성당의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705번지이다. 관할구역은 한경면 지역 중 신창리, 금등리, 낙천리, 두모리, 용수리, 용당리, 저지리, 조수리, 판포리, 한원리 이며, 관할 공소는 용수공소와 조수공소이다. 연구대상으로 신창지역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1>을 보면, 전국적인 천주교 신자 비율이 10.9%이고 제주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10.3%이다. 그러나 <표2>를 보면, 신창성당 전체 신자 비율은 17.1%, 특히 신창리의 신자 비율 41.2%는 전국 평균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이는 이 지역의 천주교 교세가 강했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지역별 천주교 신자수의 비교

지역	인구수(명)	신자수(명)	신자비율(%)
전국	47,041,434	5,146,147	10.9
서울특별시	9,762,546	1,382,264	14.2
부산광역시	3,512,547	261,410	7.4
대구광역시	2,456,016	240,230	9.8
인천광역시	2,517,680	345,843	13.7
광주광역시	1,413,644	183,787	13.0
대전광역시	1,438,551	153,867	10.7
울산광역시	1,044,934	66,991	6.4
경기도	10,341,006	1,286,104	12.4
강원도	1,460,770	132,936	9.1
충청북도	1,453,872	143,284	9.9
충청남도	1,879,417	171,586	9.1
전라북도	1,778,879	202,959	11.4
전라남도	1,815,174	157,333	8.7
경상북도	2,594,719	184,100	7.1
경상남도	3,040,993	178,689	5.9
제주도	530,686	54,764	10.3

자료 : 통계청(2005년 통계 자료)

다른 한편, <표 2>를 보면 현재 신창성당 관할 지역의 총 인구수 대비 천주교 신자의 비율은 약 17.1% 정도로 파악되었다. 특히 신창본당이 위치한 신창리의

경우 인구수 대비 신자수가 약 41.2%를 차지하고 있어 절반에 가까운 지역주민이 천주교 신자이다. 과거 지역주민의 60~70% 이상이 신자였을 때(신창성당 출신 교○○신부 면접 내용)와 비교하면 신자수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까지도 마을 주민의 40% 이상이 천주교 신자인 것은 전국적으로도 특이한 현상이다.

<표 2> 신창성당 관할지역 인구수와 신자수

	인구수(명)		신자수(명)		비율(%)
	남	여	남	여	
	합계		합계		
신창	437	445	142	221	41.2
	882		363		
두모	230	251	29	61	18.7
	481		90		
판포	271	279	12	34	8.3
	550		46		
조수	436	413	53	71	14.6
	849		124		
저지(일부) -수동 지역	534	509	10	14	2.3
	1043		24		
용당	127	142	23	35	21.6
	269		58		
한원	160	159	20	25	14.1
	319		45		
용수	224	238	41	76	25.3
	462		117		
기타			1		·
합계	2528	2550	331	537	
	5078		868		17.1

자료 : 제주도 (2006.12.31 통계자료) ; 신창성당 (2007.3 통계자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주교의 교세가 전국 평균, 제주도 평균 보다 훨씬 높은 신창성당의 관할 지역인 신창과 그 주변지역¹⁾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천주교 전래 과정

1) 신창성당 관할 지역 중 신창리에 신창성당이 위치해 있고 교세가 가장 강한 지역이므로 이후 본 논문에서는 신창성당 관할지역을 통틀어 '신창지역'으로 지칭한다.

등 교회사 부분, 그리고 신자수 변화 추이 및 현황 등은 천주교회사에 대한 각종 문헌, 기존 연구 문헌, 각종 통계 자료가 사용 되었다. 그리고 신창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성장에 관한 당시 상황, 신창 성당의 현황, 천주교와 신창 지역사회와의 관계, 천주교의 영향 등에 대한 조사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조사는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는 신창성당 출신 신부, 신창성당 주임 신부, 타 성당 주임 신부, 신창성당 관계자, 신창리 관계자, 신창리 주민 중 신자와 비신자 포함 15명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구술 생애사 접근을 시도하였다. 구술 생애사(oral life history)는 구술사 연구 방법 중의 하나로 한 개인이 지나온 삶을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기록이다. 구술사에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구술로 된 기록을 말하는 구전(oral tradition)과 한 개인이 과거의 특정 사건이나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구술 증언(oral testimony)이 있다. 한국전쟁이나 제주도 4·3사건과 같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회고를 하여 진술하는 구술들은 구술증언이라 볼 수 있다. 구술 생애사는 구전이나 구술 증언과 달리,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불러내어 서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 개인의 살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특정 사건에 대한 구술 증언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 면담자인 청자의 질문을 통해 구술자는 특정한 기억을 현재로 불러와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처럼 구술 생애사에서는 구술자와 면담자의 상호 관계가 중요하므로 자료수집 과정과 방법에 신중해야 한다.²⁾ 이러한 구술 생애사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로서의 의미를 갖으며, 지방사, 생활사, 여성연구 등에 많이 이용된다. 이는 지방민, 여성 등을 역사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경험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³⁾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객관적 구조와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⁴⁾ 구술 생애사는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의 경험적 맥락이 중시될 경우 마을사, 지역사 또는 국가사를 재구성하는데 일차 사료가 된다.⁵⁾ 이러한 구술사의 학

2) 윤택림, 함환희(2006),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 방법론」, 아르케. pp.57-59 pp.170~174

3) 윤택림, 상계서 p.37

4) 윤택림, 상계서 p.53

5) 윤택림, 상계서 p.174 여기서 맥락이란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환경이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역동적

문적 역할을 보면 첫째,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가능성이 있으며, 둘째, 문헌사료만으로 확인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 대체가 가능하며, 셋째, 문헌사료에 대한 분석 및 이해를 촉진하며, 넷째, 문헌사료 및 사진자료 등 관련자료 공개 및 발굴을 촉진하기도 한다.⁶⁾ 구술 생애사를 통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제주 4·3 당시 아동학살에 대하여 기저에 있는 생존자들의 기억을 통해서 살펴본 허영선(2006)의 연구가 있다. 또한 경북 영양군 한티리의 세 여성의 구술 생애사를 통하여 남성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 거대 역사 속에 매몰되어 온 지역 여성들의 삶을 돌아보려 했던 이원심(2005)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 온평리 해녀 김순자의 생애사를 통해 제주해녀의 삶의 모습을 살펴본 유철인(1997)의 연구가 있으며,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속의 여성들의 기억을 통해 그들의 삶을 살펴본 김현아(2004), 한국전쟁을 겪은 여성들의 삶을 생애사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연구한 염미경(2003, 2005)의 연구가 있다. 특히 위의 연구들은 여성에 대한 구술생애사로서 사회 소수자로서 살아온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구술이라는 방법을 통해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경험을 현재로 불러내어 서술하고 자신들의 삶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신창지역은 지역에서 천주교의 전래에 대한 사료와 연구가 단편적이며 부족하다. 그래서 신창지역에서 천주교의 성장과 함께 해 온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술사 연구방법을 실시하고, 그들의 세부적인 기억과 경험을 통하여 천주교의 지역화와 성장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연구방법으로 심층면접을 선택하고 특히 신창성당 신자를 대상으로 구술 생애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구술 생애사 면접 대상인 한경면 용수리에 거주하고 있는 박 수산나(82세) 할머니는 현 신창성당 주임 신부인 김◆◆ 신부의 추천으로 만나게 되었고, 구술 생애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본 연구자는 박 수산나 할머니를 방문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박 수산나 할머니의 생애사에 대한 구술 자료를 얻었다. 그 중 신창성당과 용수공소에서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경험과 할머니의 일상생활, 신창성당의 교세확장에 대한 할머니의 생각들을 신창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성장과정 전개에서 함께 살펴보았다. 박 수산나 할머니를 구술

인 과정을 말한다.

6) 한국구술사연구회(2005), 「구술사-방법과 사례」, 선인. pp.39~41

생애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보면, 60년 가까이 신창·용수 지역에 거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1950년대 초에 공소 전교회장 직을 맡은 이후 최근까지 회장을 역임하면서 이 지역 천주교 교세 확장에 큰 기여하였다. 그리고 박 수산나 할머니는 III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신창성당 초창기 전교회장인 김계담(베네딕토) 회장의 며느리이며, 현 사목회장의 장모이기도 하다. 박 수산나 할머니를 비롯하여 그의 가족은 신창성당의 교세 확장과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박 수산나 할머니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신창성당과 지역 사회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구술 생애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분석틀, 그리고 우리나라와 제주도의 천주교 전래와 성장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연구대상지역에서 천주교의 성장과 지역화에 대하여 살펴본다. 천주교의 전래와 정착, 교세 확장 과정, 그리고 신창성당의 교세가 약화 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때 60여 년간 신창성당 용수공소에서 신앙생활을 해 온 박 수산나 할머니(82세)의 생애사⁷⁾를 들어보고, 할머니의 신앙생활과 신창지역에서 천주교 성장을 함께 본다.

IV장에서는 천주교의 지역화 결과, 신창지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는 심층면접의 대상자들과의 면접 내용을 토대로 복지부분에 중점을 두어 첫째, 지역 공동체의식 형성 측면, 둘째, 주민교육에 기여한 측면, 셋째,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한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7) 이 때 박 수산나 할머니의 구술 생애사 부분이 제주도 사투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박 할머니의 구술사 부분에 대하여 논문의 뒷편에 표준어로 번역한 자료를 부록으로 붙였다.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범위

1. 선행연구 검토

우선 우리나라 천주교 전래부분을 살펴본다. 이와 관련해 초기 우리나라의 천주교 전래와 수용을 살펴보고 있는 김옥희(1982), 최병옥(1988), 방상근(2004)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를 시대적, 주제별로 세분화 하여 18세기 조선 천주교 여성신자 의식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이현아(2005), 조선말기 사회의 '교안'에 대하여 연구한 이원순(1986), 박찬식(1995)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일제시대 천주교에 대하여 윤선자(2002), 노용필(2003)의 연구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천주교 전래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전체적인 수용 과정과 그 영향을 다루고 있다.

천주교의 지역 전래에 대한 연구로는 영서지역의 전래에 대해 다룬 금경숙(2002), 영남지방을 다룬 김동소(1997), 안성지방에 대해 살펴 본 김주섭(1996)의 연구가 있다. 또한 원주·횡성 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정착, 그리고 영향에 대해 다룬 이원희(2001)의 연구도 있다. 위의 연구들은 각 지역 천주교의 전래 및 교세 확장의 배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역의 설정이 광범위하여 세부 마을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고, 지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부분만 다루지는 한계가 있다.

천주교가 아닌 타 종교의 지역 정착에 대한 연구를 보면, 진주지역 기독교 전래에 대해 살펴 본 강석효(2001), 대전·충남 지역의 기독교 전래에 대한 송현강(2004)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익산 지역에서의 원불교 선교정책에 대해 살펴 본 박건종(1998)의 연구가 있다. 이런 타 종교의 지역 전래 연구는 천주교의 지역 전래 연구처럼 지역 설정에 있어서 다소 광범위하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선교 방법 등 과거에 제한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 천주교 전래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에 100여 년

간의 제주 천주교의 전체적인 역사와 각 본당의 연혁 및 현황 등이 정리 되었다. 그리고 제주도의 천주교 수용 전래 과정의 사회·정치·경제적 상황과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한 김옥희(1987)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이 논문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연구로 천주교가 제주도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룬 양철호(1999)와 김두옥(1999)의 연구가 있다. 양철호는 천주교의 전래가 제주 근대 여성 교육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서 여성교육을 포함한 공교육과 천주교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김두옥은 제주도 한림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그 수용배경에 대하여 살펴 보면서 이시돌 목장 건설 등에 의하여 천주교 교세 확대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한 점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천주교의 전래와 성장, 그리고 그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역이 광범위하게 설정되거나 과거의 전래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마을 단위의 천주교의 성장과 지역화, 그리고 지역화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영향에 대하여 기존 문헌자료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다.

2. 천주교의 전래와 성장

신창성당 관할지역에서의 천주교의 지역화를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나라와 제주도의 천주교의 전체적인 전래와 성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천주교 전래와 성장

16세기부터 복잡하게 얽힌 조선의 정치적 상황은 17~8세기를 거치면서 극에 달하였다. 이처럼 조선왕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반세기에 걸친 민족의 재난을 겪고, 이로 인해 온 나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쟁탈을 일삼는 당파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히 부정부패를 초래하고 사회에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사상·종교로서 천주교가 수용되었던 것이다.

천주교의 우리나라 전래된 배경을 최병옥의 ‘조선후기 천주교의 수용과 그 영향’ 연구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면으로, 17세기 이후 농업부분에서 농지개간이 활발히 전개되어 전란으로 소실된 농경지 면적이 회복되었으며,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 증가와 노동력 절감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이전보다 넓은 농토를 적은 노동력으로 경작할 수 있게 되자 지주들은 소작농에게 대여해 주던 경작지를 노동력을 고용해 직접 경작하게 되었다. 이는 농민층 내부의 계층분화를 발생하게 하였고, 일부 부유한 농민들은 양반을 능가하는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사회적인 면으로, 신분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경제력에 따라 신분상승의 기회가 확대되어 이전까지 절대적 지위를 차지했던 양반의 권위가 무너져 각 신분간의 이동도 활발해지게 되어 양반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글의 보급이 일반화 되면서, 일반 대중의 지적 수준도 성장하게 되었다. 셋째, 사상적인 면으로, 조선왕조 건설기에 이론적·실천적 지도이념이었던 성리학은 16세기 이후부터 점점 관념 철학화 하여 예송(禮訟)과 당쟁으로 그 본연의 탄력성을 잃고 말았다.⁸⁾ 이와 같은 성리학에 대한 비판의 움직임은 결국 실학의 발생으로 귀결되고, 이로 인해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사회 각 부분에 걸쳐 폭 넓은 제도 변화를 이루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16세기부터 전래되고 있었던 서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⁹⁾ 중국에 파견되어 있던 사신들은 예수회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양의 문물을 접하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받은 과학기기와 천주교 교리서를 조선에 소개하였다.

처음에 천주교는 종교가 아닌 서학으로 조선의 남인 학자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서학을 학문적 호기심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이익의 영향으로 성호학과 내에서 서학에 대한 학문적 탐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서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마침내 소장 학자들이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

8) 강주진(1977), “양반 관료 분열”, 『한국사』 12. 국사편찬위원회. - 최병옥(1988), 「조선후기 천주교의 수용과 그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재인용.

9) 유흥렬(1990), 『한국천주교회사 上』, 가톨릭출판사. p.50

게 되었다. 1784년 이승훈이 이벽의 권고로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조선에 돌아온 후 조선에서 종교로서 천주교의 전래가 시작 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천주교회는 조선정부와 주자학을 따르던 기존 계층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당시의 신자들은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폐지함으로써 주자학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라도 진산(珍山)에서 정조 15년(1791년)에 천주교 신자인 윤지충과 권상연이 조상제사를 거부하고 신주를 파기하여 처형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진산 사건’이라 한다. 이후 1801년 ‘신유박해’, 1839년 ‘기해박해’, 1846년 ‘병오박해’,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조선 천주교회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여러 차례의 박해와 병인양요가 있는 후 1866년 프랑스 전권대사 고고르당(F.G.Cogordan)이 서울에 와서 <한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한다. 이는 조선에 천주교의 자유보장과 프랑스 사람들 특별 보호 조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천주교 신앙의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1910년에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다. 1910년대 일제는 법령에 근거하여 종교를 규제하였다. 서구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천주교, 개신교 등 기독교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로 규제가 시작되었다. 주교 및 천주교 성직자들은 3·1 운동에 대하여 부정적이었고 한국인 신자들의 만세운동 참여를 금지하였다. 천주교회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선교 활동을 보장 받기 위해 가능한한 일제와의 마찰을 피하자는 의도에서였다. 3·1 운동 이후 일제는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정책을 ‘문화정책’으로 변경한다. 이 문화정책의 핵심은 한국인의 민족분열을 획책하는 것이었다. 이 때 일제는 포교규칙을 개정하여 교회의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어 교회 설립 규제를 완화하였고, 사립학교규칙도 개정하여 학교 내에서 종교 행사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기본 방침은 바꾸지 않고 문화정책의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한 부분도 있었다.

1930년대 일제는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이 때 천주교회는 신사참배를 용인하고 있었다. 한국에 대한 통치권을 강화해 가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천주교회가 계속 반대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박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사참배는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정책에 협조를 하는 것이었고,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해 한국인들의 정신 상태를 전시체제화 하기 위

하여 전개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도 천주교회가 적극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후 한국 천주교회는 교회의 존립을 위해 일제의 ‘전시체제화’에 적극 협조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은 <천주교 전래 이후 한국사회와의 관계에서 범한 가장 큰 과오>라는 조사¹⁰⁾에서 일제시대 전시동원체제 협력이 전체 응답자 중 29.5%, 3·1운동 참여 반대가 11.6%, 신사참배허용이 11.1%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일제시대 때의 천주교회의 일제에 협력했던 정책들이 현재에 비판 받는 이유이다.

1945년 해방 당시 한국천주교회의 상황을 보면, 교구는 서울, 대구, 전주, 광주, 춘천, 평양, 함흥, 덕원, 연길 등 9개 교구가 있었으며, 신자수는 18만 3천 666명이었고, 본당은 163개, 한국인 신부는 136명, 외국인 신부 102명, 여자 수도단체가 6개, 남자 수도단체가 2개 있었다.¹¹⁾ 이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한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주둔하게 됨으로써 한국천주교회도 평양·함흥·덕원·연길의 북쪽의 교구와 서울·대구·전주·광주·춘천의 남쪽의 교구로 나뉘게 되었다. 그 중 연길교구는 중국교회의 관할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미군정 시절 남한의 천주교회는 미군정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천주교회¹²⁾는 더욱더 반공자세를 취하게 되고, 이때 군중신부제도¹³⁾가 생겼다.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 미국천주교회는 구호물자를 한국에 보냈고, 그 원조에 힘입어 한국천주교회는 구민활동과 함께 구호기관, 자선사업기관을 설립하며 성장을 한다. 이 당시 새로운 신자가 해마다 수만 명을 넘었으며, 1955년의 신자수는 215,000명으로 1945년도와 비교해 볼 때 10년 동안 17%의 증가를 기록했다. 1960년도에 와서는 신자수가 451,000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는 1955년도와 비교해 볼 때 5년 동안 209%가 증가한 수치였고, 연평균 성장률이 21%였다. 이처럼 엄청난 신자 증가세는 전쟁 이후 시중에 돌던 구호물자의 많은 양이 천주교회를 통해서 나눠지고 있었기 때문이

10) 김재득 외(2004),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 평가와 전망을 위한 전문가 조사보고서」, 한울. p.53

11) 문규현(1994), 「민족과 함께 쓰는 한국천주교회사 II-1945년부터-」, 빛두레. p.15

12) 이후부터 ‘한국천주교회’는 북한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천주교회를 말한다.

13) 문규현, 전개서. pp. 231~232 한국전쟁 중 생긴 제도로서 군에서 군인들을 위해 사목을 하는 신부를 말한다. 이러한 군중제도는 당시 군인들의 신앙적 무장을 위한 군목활동의 필요성에 의하여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는 군 선교라는 한 축이 있었지만,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하였으며, 후에도 지속적으로 반공 세력의 관심과 지원 대상이 되었다.

다.14)

이후 한국천주교회는 인권운동과 사회정의구현운동을 실시하게 된다¹⁵⁾. 한국 천주교회가 20세기 한국사회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표 3>을 통해서 보면,¹⁶⁾천주교는 민주화 운동 또는 정치비판 등 사회정의 운동에 대하여 기여를 많이 했다는 의견이 많다.

<표 3> 천주교의 20세기 한국사회발전 기여도

구분	비율(%)
민주화운동/정치비판역할	60
민중계몽과 근대세계관 형성	30
사회복지	10

자료 : 김재득 외, 전게서. p.261

1990년대 이후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모이게 되면서, 한국천주교회의 사목은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의 신자와 공소는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신자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한편, 200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천주교회의 현황을 보면 <표 4>와 같다. 현재 한국천주교의 신자 수는 4,667,283명으로 전체 인구수 중 천주교 신자가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8개의 교구와 1,447개의 본당을 통하여 사목이 이루어지고 있다.

14) 문규현, 전게서. p.21

15) 1974년 9월 26일 '민청학련사건'에 관련하여 지학순 주교가 구속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결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제단은 70년대 인권운동과 사회정의구현운동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현재에도 그 활동은 계속 되고 있다. 여기에서 '민청학련사건'이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사건으로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일어났던 김대중 피랍귀국사건으로 크게 자극을 받은 반유신체제의 국내여론과 더불어, 10월 서울대 문리대생의 유신반대데모를 기점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반독재·반체제 운동이 과급·확산 되었으며, 1974년 4월 유신정권의 긴급조치에 의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180명이 구속·기소된 사건을 말한다.

16) 김재득 외, 전게서. pp.261~262

<표 4> 한국천주교회 현황

구분	단체수	인원수
신자수		4,667,283
교구	남-15 북-3	
공소	1,115	
본당	1,447	
대주교		5
주교		25
신부		3,837
남자수도단체	46	1,407
여자수도단체	103	9,676

자료 :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2005.12.31 통계)

<표 5> 한국천주교 교구현황

관구	교구
서울관구	서울대교구, 춘천교구, 인천교구, 수원교구, 대전교구, 원주교구, 의정부교구, 평양교구, 함흥·덕원자치구
대구관구	대구대교구, 부산교구, 청주교구, 마산교구, 안동교구
광주관구	광주대교구, 전주교구, 제주교구
군중교구	군중교구

자료 : 한국천주교 중앙 협의회 (2007.3 통계자료)

2) 제주도의 천주교 전래와 성장¹⁷⁾

제주도에 처음으로 천주교라는 신앙이 알려진 것은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하여 제주로 유배를 온 정난주(마리아)에 의해서라고 볼 수 있다. 정난주(마리아)는 ‘황사영 백서 사건’¹⁸⁾의 황사영(알렉시오)의 부인이었다. 정난주(마리아)는 제주에 유배되어 대정현의 노비로 유배되었고, 37년 동안 제주에서 관비로 살다가

17) 제주도의 천주교 전래와 성장은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2001),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를 주로 인용하여 전개하였다.

18) 1801년 ‘신유박해’ 당시 황사영(알렉시오)은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 상황을 북경 주교에게 호소문을 보내려고 했다. 이때 비단에 1만 3천여 자나 되는 글을 써서 보내려 하다 체포되고 황사영은 처형 당하게 되었다. 이를 ‘황사영 백서사건’이라 한다.

숨을 거두었다. 1845년에는 한경면 용수리 바닷가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인도한 라파엘호가 표착하여 제주 앞바다에서 미사를 봉헌하게 된다.¹⁹⁾

이후 제주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영세 입교한 사람은 김기량(펠릭스 베드로) 이다. 김대건 신부의 표착 이후 13년이나 지나서야 제주도가 천주교회와 다시 관련을 맺게 된 것이다. 이로써 제주에는 처음으로 제주 출신의 신자에 의해 복음이 전파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 후 김기량은 1866년 병인박해 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기량의 순교로 다시 제주의 복음사는 단절된다. 이후 제주도의 천주교 전래는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래 되었던 것처럼 제주민²⁰⁾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수용한다. 1899년 4월 22일에 제주본당의 설립이 결정되고, 페네(C.Peynet, 가롤로) 신부와 김원영(아우구스티노) 신부가 제주본당으로 임명된다. 이리하여 제주도에서의 천주교 교세는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의 교세는 점차 확대 되어 1901년 통계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 총인구 4만여 명 중에 신자가 242명이었고, 예비신자가 700여 명이였다.²¹⁾

이 과정에서 1901년 신축교안²²⁾이 발생한다. 당시 700여 명 이상이 순교한 신축교안은 교안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폐단, 즉 양대인으로 불리는 선교사나 교회의 세력을 등에 업고 지방민들을 억압한 일, 교회에 거짓 의탁한 일부 신자들이 지방민들로부터 금전이나 토지를 탈취한 일, 제주 지역의 풍습을 무시한 채 신목을 베어 버리거나 당집을 헐어버린 일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다.²³⁾

19) 이는 한국인 최초의 성직자인 김대건 신부와 제3대 조선교구장 페레올 주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미사와 기도를 제주도 서쪽 해안에서 봉헌한 것은 한국 천주교회 사적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라파엘호가 표착한 용수리에서는 1999년 9월 19일에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순교자 현양 대회 및 성지 선포식’을 가졌으며, 7년이 지난 2006년 11월 1일 용수성지에 건립된 <성 김대건 신부 제주표착기념관>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20) 제주 출신 양용항(베드로)와 이 라우렌시오가 육지를 왕래하던 중 신앙을 받아들여 입교한 뒤 제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21) 박찬식(1995), 「한말천주교회와 향촌사회」,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p.80

22) 지금까지 1901년의 제주 ‘신축교안(辛丑教案)’은 제주교안, 신축교난(辛丑教難), 이재수의 난, 제주 민란 등 여러 가지로 불리어 왔다. 이 중에서 ‘이재수의 난’ 또는 ‘제주 민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건이 제주의 세금 징수와 관련된 학정과 천주교회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봉기한 일반 민중들의 민란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축교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사건으로 수많은 신자들이 희생되거나 순교하였으므로 박해의 요소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인데, 여기서 ‘교난’이란 용어는 일본인 학자들이 박해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나 1901년 제주 사건은, 첫째, 공식적인 박해가 끝난 뒤에 일어났고, 둘째, 박해나 민란의 요소가 함께 있으며, 셋째, 그 여파가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었고, 넷째, 사건의 배경과 과정에는 교회와 일반 민중과의 갈등, 제주사회의 특성, 교회의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신축교안’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신축 교안에 대한 내용은 박찬식(1996)의 “한말 천주교회와 향촌사회-교안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와 김옥희(1980)의 “제주도 천주교 교안사” 등을 참조 바란다.

1903년경 라크루 신부는 제주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여학당(신성여학교의 전신)’을 설립하고, 전교 지역을 한림·조천 등지로 확대해 나가게 된다. 1909년 10월 18일에는 신성여학교의 설립을 인가 받을 수 있었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김 아나타시아 수녀(초대교장)와 이곤자 수녀를 관리자 및 교사로 선발해 파견했으며, 근대 신식여학교의 설립에 의해 제주 여성교육에 기여하게 된다. 신성여학교는 유아 및 초등교육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당시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제반 내용과 초등교육에 필요한 교과들을 학년에 맞추어 가르쳤다. 그러나 1916년 일제의 탄압으로 휴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제주 교회는 1916년 5월 이래 10년 동안 주임신부가 공식으로 남게 되어 ‘공소시기’를 맞게 된다. 그 후 1926년에 제주본당과 홍로본당이 부활하게 되고, 이 때 부임한 최덕홍 (요한)신부는 1930년 12월에 고딕식으로 성당을 건립하여 성당을 완공하여 봉헌식을 갖게 되었다. 이후 해방 이전까지 제주교회는 성당이 폐쇄되고 수도자들이 투옥되었지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성직자와 신자들은 교회의 원상회복과 교세확장을 위한 활동을 했다. 그 중 1916년 일제의 탄압으로 강제 휴교되었던 신성여학교 부흥을 위한 노력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1946년 9월 3일 ‘신성여자중학원’을 야간 1학급으로 개교하여 인가를 받게 되고, 신성여자중학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학생 수가 급증할 정도로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고, 제주여성중등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이 제주도로 몰려들기 시작하였는데,²⁴⁾ 특히 이 당시에 많은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신자들이 피난을 오게 되면서 제주도 전교에 큰 전환기가 되었고, 제주도의 교세 확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특히, 1952년 신창지역에는 춘천에서 피난을 온 조용환 신부를 초대 주임으로 임명하고 신창공소가 신창본당으로 승격하게 된다. 이때 전쟁 발발 직후부터 미국의 민간구호단체들은 한국에 대한 원조를 시작하였다. 특히 가톨릭복

23) <뫼텔 문서>, 정리번호 제주-121, 라크루 신부의 1901년 6월 11자 서한(「제주 100년사 자료집 제3집」, p.71).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1999. p.91 재인용

24) 부만근(1975), 「광복제주 30년」, 문조사. p.117
1951년 1월 3일까지 입도 피난민은 16,000명이었으나 1월 15일에는 87,000명, 5월 20일에는 148,794에 이르러 제주도 토착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협의회(NCWC)의 가톨릭구제위원회(CRS)는 전쟁 첫해에만 200만 달러의 구호금을 모아 한국으로 보내왔다. 그리고 이들 위원회에서는 구호품을 보내 왔는데, 이러한 교회의 전재 구제 활동은 대부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루어졌고, 신자수 증가에도 기여하였다.²⁵⁾

1950~51년 제주 본당의 신자수는 해방 직후 얼마 되지 않았으나 611명으로 증가하였고, 1951~52년에는 932명으로 증가 하였다. 또 1951년에는 한 때 예비 신자수가 1,173명을 기록한 적도 있었다. 서귀포 본당의 경우에도 1950~51년에 203명이던 신자 수가 1951~52년에는 241명으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설된 신창본당의 경우에는 1952년 첫해의 신자수가 296명으로 서귀포 본당의 신자수를 능가하고 있다. 1952년 제주의 총 신자 수는 1,469명, 예비 신자 수는 359명, 새 영세자수는 246명이었다.²⁶⁾

1954년에 맥그린치(Patrick J. McGlinchey, 임피제 파트리치오) 신부가 한림 지역에 정착하였다. 임 신부는 한국 농촌, 특히 제주 지역의 농촌이 매우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는 그 부흥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1957년부터 한림 지역의 4H²⁷⁾ 클럽에서 가축 사육으로 시작된 이시돌 목장의 성공적인 발전은 제주도의 축산업을 발전시킴²⁸⁾과 동시에 제주도에 천주교가 뿌리를 내리는 데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시돌 목장으로부터 파생된 의료, 복지 등 비영리사업은 한림 지역 주민들에게 천주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천주교 교세를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²⁹⁾ 이후 이시돌 목장 안에 양로원을 열어 노인 복지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이시돌 목장 안에는 피정기관, 수녀원 등이 생겨 하나의 천주교 촌락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 지역 천주교회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성장하였고, 광주교구장 헨리(현 하롤드) 신부는 1956년 9월 21일 ‘제주 감목 대리구’를 설정함과 동시에 제주

25) 제주선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2001),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pp.186~187

26)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p.189

27) 4H는 머리(Head), 가슴(Heart), 손(Hand), 건강(Health)의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붙인 명칭으로, 4H 클럽은 바로 농촌 젊은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단체였다.

28)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가 설립되어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이시돌 목장과 한림읍 대림리에 사료공장을 시설하고 양돈사업을 주축으로 한 축우, 면양 등 축산사업과 이에 병행한 사료사업과 더불어 양모가공을 위한 한림수직사를 운영함으로써 제주도에 축산사업의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

29) 김두욱, 「제주도 외래종교의 공간적 확산과 수용배경」,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9. pp.64~66

본당 주임인 쿠파(구 가롤로) 신부를 초대 감독 대리로 임명하였다. 1956년 제주 가목 대리구가 설정될 당시 제주 교회의 신자수는 모두 3,261명을 기록하였다. 1958년에는 총 신자수 7,039명을 기록함으로써 1956~58년의 2년간 신자 증가율이 216%나 됨으로써 전례가 없는 기록을 남겼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1957~58년 한 해의 성인 영세자수가 2,551명이나 되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³⁰⁾

<표 6> 제주도의 천주교 확산

1차 확산지	2차 확산지	3차 확산지
제주 중앙본당 (1899) *1899	동문성당 (1968) *1968	김녕본당 (1958) *2004 조천공소 (1975) *1999
	광양본당 (1970) *1972	동광본당 (1995) *1995
	서문본당 (1977) *1977	신제주 본당(1981)*1981 ->노형본당(1997)*1997 ->연동본당(2001)*2001
	화북본당 (1997) *1997	
	우도공소 (1904, 1947)	
서귀포(한논) 본당 (1899) *1899	모슬포본당 (1954) *1958	무릉공소 (1960) 화순공소 (1961)
	가나안 공소 (1955)	
	남원본당 (1956) *1997	
	중문본당 (1957) *1988	
	성산포 본당 (1955) *1973	세화 공소 (1992)
	효돈 성당 (1958) *1988	
	표선본당 (1968) *1997	
	서귀복자본당(1970) *1970	
신창 본당 (1935) *1952	용수공소 (1949)	
	조수공소 (1952)	
	고산본당 (1955) *1990	
	청수 공소(1956)	
한림본당 (1951) *1954	금악 본당(1957) *1982	
	하귀본당 (1961) * 1998	
	애월 공소 (1959)	

자료 : 김두옥, 전개서. p.22 ()는 천주교회 창건연도. *은 본당승격, 폐쇄된 공소 제외

1965년에는 학교법인 신성학원이 설립인가를 받았고, 1967년 3월 신창성당 출신 고승욱(아우구스티노) 신부가 독일에서 서품을 받음으로써 제주도 출신 최

30)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pp.209~210

초의 사제가 탄생된다. 1971년 6월 28일 교황 바오로 6세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주 감목 대리구를 ‘제주 지목구’로 설정하였다. 1977년 제주 지목구는 제주교구로 정식 승격되었다. 이는 제주 본당이 설립된 지 78년 만의 일이다. 이후 위의 <표 6>과 같이 제주도에는 새로운 본당들이 계속 생겨났다.

2007년 지금 현재 제주교구의 교세 현황을 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제주교구 교세현황

구분	신자수	본당수	공소수	성직자			수도회		사회복지기관	의료·법인기관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신용협동조합
				주교	신부		남	여						
					교구	기타								
단위수	63,575명	24	11	1	34	5	4	11	9	2	1	1	6	2

자료 : 천주교 제주교구청 (2006)

현재 제주교구의 신자수는 63,575명이다. 그리고 본당수는 시지구 12, 서부지구 5, 남부지구 7, 합해서 24개이며 공소는 11개이다. 현재 주교 1명, 신부 39명, 수도자는 약 120명, 수도회는 15개가 활동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은 9개, 의료·법인기관은 2개, 고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유치원 6개, 신용협동조합 2개가 있다.

3. 분석틀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 작은 지역 단위의 천주교 전래 연구는 많이 부족했다. 본 논문은 한 마을, 즉 지역 안에서 천주교의 지역화와 성장, 그리고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지역과 지역화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은 주변지역과 뚜렷이 구별되는 자연적·문화적 특징을 지닌 동질지역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성격을 지니면서 행정 편의, 관습, 생활 편의 등이 복합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지역적으로 보기도 하고, 인간의 공동생활이 행하여지는 일정한 범위가 주민의 생산 생활양식 또는 의식, 태도에 따라 다른 범위와 구별되는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의 범위인 지역사회를 지역으로 보기도 한다.³¹⁾ 지역사회란 한 집단의 사람들이 빈번하게 접촉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해 살면서 역사와 문화를 공동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공동체의식으로 소속 의식을 가지게 될 때 지역사회가 된다.³²⁾ 지역들은 자연·생태적 차이뿐만 아니라 물질적 토대와 사회관계의 차이를 반영하는 독특한 역사성과 사회성을 지니고 있고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들은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내면화 된다. 자신이 태어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공간의 역사가 지역주민에게 내면화되어 재구성된 지역사회는 해당 지역주민의 정체성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³³⁾ 이처럼 지역 또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지역의 양상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정체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떠한 부분이 지역의 한 부분에 소속하게 되고, 지역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 그 안에 내면화 되는 과정을 지역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종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종교가 한 지역 안에 소속됨에 있어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종교의 교세 확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역 전체적으로는 지역안의 한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31) 김용만(1986), “사회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이론적 배경과 접근법”, 『사회과교육』 제19호, 한국사회과교육회. p.10

32) 강경미(2005), “제주도 초등 사회과 지역화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 3,4학년 지역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p.5

33) 엄미경(2006), “지역화와 지역정체성, 그리고 지역화 교육의 방향 :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38권 제2호. p.107

과거의 종교는 활동이 종교 내에만 국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 사회는 종교에 대하여 시대적 요청에 따라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처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안의 종교는 그 지역사회 안의 주민이 집합된 지역사회 내의 한 집단이며,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때로는 그 지역사회의 중심적 위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위치에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³⁴⁾ 길버트와 스펙(Gilbert & Specht)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지역사회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은 생산·분배·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호부조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은 산업기관,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이 공통적으로 수행한다고 한다. 특히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모버그(Moberg)는 사회화 기능, 신분부여 기능, 친교적 기능, 사회연대 기능, 사회안정 기능, 사회통제 기능, 사회개혁 기능, 사회복지 기능, 자선 기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³⁵⁾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천주교가 신창성당 관할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화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구체적인 영향들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지역인 신창성당 관할지역(한경면 신창리, 금등리, 낙천리, 두모리, 용수리, 용당리, 저지리, 조수리, 판포리, 한원리)에서의 천주교 지역화는 처음 천주교가 전래된 1935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살펴본다. 이를 자세히 보면, 처음 천주교가 이 지역에 전래되어 정착하려고 시도했던 시기인 1935년부터 1950년 한국전쟁 이전 까지를 초창기 천주교 정착 시기로 본다. 그 다음 이 지역 천주교의 교세 확장이 타 지역에 비해서 컸으며 지역에 미친 영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기인 한국전쟁부터 1990년까지를 지역의 천주교 교세 확장 시기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교세가 약화되는 시기로 본다.

34) 이향남(2005),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참여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p.13

35) 이향남 상계서, p.20

Ⅲ. 신창지역에서 천주교의 성장과 지역화³⁶⁾

1. 초창기 천주교의 정착(1935~ 한국전쟁기)

초등학교 교사였던 안병호(베네딕토)가 신창초등학교에 부임하면서 천주교를 지역에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신창 지역에는 제주본당 신창공소³⁷⁾가 설립된다. 이에 대하여 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와 신창리 마을 주민 양▲▲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원래는 성당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에만 있었다고. 그러데 신창에 성당에 있게 된 것은 일제시대에 초등학교 선생신자 안병호 선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갔었지. 거기에서 공소, 본당이 아니고. 그걸로 시작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갔지. 우체국(신창우체국)자리에서... (신창성당 출신 고△△신부)

그 내력을 보게 되면 1935년도에 우리 신창,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 이전에 서당식으로 출발할 때 안병호라고 하는 선생이 이쪽 신창리에 부임해가지고. 또 그 분이 그 선친으로부터도 종교적인, 천주교에 대한 그런 것을 물려받는 것이 있었고. <중략> 안병호 선생도, 선생으로 계시면서 천주교에 대한 전교가 그 때부터 시작 되었는데. 현재 그 우체국(신창우체국) 자리가 한 5~60년 정도. 그 때 저희들은 이만큼 어려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37년생이니까 35년이라면 벌써 오래 전에 그런 거, 종교 운동이 짝이 트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양▲▲, 남)

위의 면접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제주본당 손 파트리치오 신부의 도움으로 현 신창우체국 자리에 있던 양중경의 가옥을 빌려 공소로 사용하다가 이듬해 이 가옥을 매입하게 된다. 당시 신입교우는 20명, 예비교우는 30명

36) 신창성당 역사 부분은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pp.388~398을 바탕으로 전개하고, 중간에 용수공소 박수산나 할머니의 살아오신 이야기, 성당 활동 이야기 등 구술한 부분을 함께 전개하고자 한다.

37) 공소는 특정 본당(本堂)에 속하는 공식적 교회단위로 주임신부가 상주하지 않는 지역신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성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자들이 성당에 오기 불편했기 때문에 공소를 설치하여 본당의 신부가 공소에 가서 미사를 드릴 수 있게 한다.

정도였다.

1937년에 안병호 공소회장이 조천초등학교로 전출이 되고, 박영호(요셉), 홍순익(프란치스코)가 공소회장, 김 바르바라가 전교회장을 맡았다. 해방 후인 1945년 9월 수원(洙源)공소 회장을 지낸 김계담(베네딕토, 분도)³⁸⁾이 전교회장으로 부임하였다. 1947년경에 신창공소의 신자가 약 1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공소가 비좁아지게 되자 공소회장 홍순익은 현 성당 부지 1,300여 평을 마련했지만 즉시 본당으로 승격되지 못하였고, 김계담 회장은 1949년 9월 1일에 용수공소를 마련한다. 박 수산나 할머니가 바로 김계담 회장의 며느리이다.

용수공소에서 195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전교회장을 역임했던 박 수산나 할머니는 현재 한경면 용수리 신창성당 용수공소 부근에 거주한다. 현재 82세로 1926년에 안덕면 화순리에서 출생해 19세에 중매결혼으로 김계담의 며느리가 되고 천주교라는 종교를 접한다.

우리 시아버님은 젊을 때부터 믿었더라고. 나는 이디 시집온 후재 영세 받아서. 스물 하나에. 스물한 살에 제주시 중앙성당에서 혼배식도 하고. 영세식도 하고 했주게. 우리 옛날에 제주시에 강으네 혼배미사 하느디, 그 때 돈으로 2원 드령으네 미사 드렸다고. <1>³⁹⁾

결혼을 할 당시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던 박 수산나 할머니는 결혼 한지 2년 후, 1946년에 세례를 받는다. 할머니가 결혼을 하고 세례를 받던 시기에는 용수에 거주하지 않았다.

대정면 무릉에 우리 할머니가 사셨다고. 거기서 결혼 행으네, 43 때 소까이(소개) 행으네 폭도들 때문에 신창오랑, 또 이제 용당 오랑 살명, 여기 집 지선. 여기 25평 되는 성당을 지언. <2>

4.3사건에 소개(疏開)해서 신창, 용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박 수산나 할머니

38) 1903년 한림읍 수원리에 구 마르첼리노 신부에 의해 수원공소가 설립 되었는데, 김계담(베네딕토), 김춘화(스콜라스티카) 부부가 구 신부의 복사 겸 수원 공소 회장을 역임 하였다. 즉 신창에 신앙공동체가 생기기 이전부터 김계담은 타지역에서 전교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9) 본 논문 뒤에 있는 표준어 번역본 참고.

는 현재까지 용수공소에서 신앙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해왔다.

신창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정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천주교 성직자들이나 교회내부의 노력이 아니라, 일반 신자에 의해서 지역에 천주교가 전래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김계담 회장처럼 다른 지역에서 전교활동을 하다가 신창지역에 와서 활동을 해 신창지역 천주교 정착에 기여한 인물을 들 수 있다.

2. 천주교 교세의 확장(한국전쟁기~1990)

1) 천주교의 교세 확장기(한국전쟁~1970)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이로 인해 신창과 용수 공소 모두 전환기를 맞는다. 다른 지방에서 피난을 온 피난민들이 제주도로 오게 되고, 특히 피난민들 중에는 성직자, 수도자, 신학생, 신자들이 많았다. 이러한 피난민들이 신창지역에 들어오면서 신창공소와 용수공소는 교세를 넓힐 수 있었다. 특히 춘천교구 소속의 조용환(타데오) 신부의 역할이 크다.

6.25 때 육지에서 온 신자들도 많았고. 내가 봐도. 와서 회장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6.25 때 피난 와서 육지에서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잠깐 와서 전교사 역할을 하셨어. <중략> 조용환 신부님이시라고. 작년, 제작년에 돌아가셨구나. 그 양반이 피난 오시면서 신부님이 상주하셨고. (신창성당 출신 교○○ 신부)

조용환 신부가 신창지역에 피난을 와서 상주함에 따라 1951년 4월에 신창공소는 '신창 준본당'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이웃 한림지역에도 신자들이 피난해 오면서 공소가 설립된다. 한림에도 많은 신부와 수녀, 신자들이 피난을 오게 되고, 또한 이 무렵 구 마르첼리노 신부의 복사로 활동하다가 신축교안 때 순교한 신재순(아우구스티노)의 양자 신순영(마르첼리노)과 김화춘(마리아) 부부도 한림으로 피신해 온다. 조용환 신부는 1951년 4월경 이곳에 '한림공소'를 설립하였다. 김화춘은 김계담 회장의 누이동생으로, 한림에 공소가 생기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박수산나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 한림은 우리 고모님이 교회 세우고, 마리아 할머니가 소까이(소개) 오랑 한림 강으네 상점 요만한디 행으네, 학생들 영세 시키기 시작 행으네 말제 그디 큰 집을 지어서. 우리 고모님네가 그 집 지서뵤 갔주게. <3>

조응환 신부는 이후 성당 건립 계획을 세워 석조 함석 성당(40.5평)을 완공하고 광주 지목구장 현 하롤드 신부의 집전으로 봉헌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신창준본당은 정식 본당으로 승격되고 조응환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임명 되었다. 이때 신자는 신창, 용수, 공소를 합하여 296명이다. 이렇게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신창지역으로 많이 유입되고, 이후 본당으로 승격되면서 교세는 더욱 확대 되었다. <표 8>은 1951~52년 제주도 교세 현황인데, 이를 보면 신창지역의 신자수가 서귀포지역의 신자수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8> 제주 교회의 교세 현황 : 1951~1952년

설립 순서	본당명	신자수	냉담자	예비 신자	증가				감소		
					성인 영세자	교우 자녀 영세자	전입자	소계	사망자	전출자	소계
1	제주	932	15	247	137	6	3	146	5	3	8
2	서귀포	241	14	67	30		8	38	6	20	26
3	신창	296	27	45	63	10	5	78	5	19	24
합계	3	1,469	56	359	230	16	16	262	16	42	58

자료 :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p.188

이 당시 박 수산나 할머니는 용수공소의 전교회장직을 맡게 된다.

(질문) 할머니가 전교회장 해 난거 마썸?

응. 전교회장 허연. 월급은 옛날에 임 신부님 때 밀가루 한포씩 주당, 그 다음엔 월급 어시 그냥 봉사로만 살았다고. 경행 늙으믄 호끔 살려주카 하당 보난 아무것도 아니. 하하. 예수님한테만 갈꺼. <중략> 우리 신랑이 시아버님 하던 용수공소 일을 보당 내가 스물일곱에 신랑이 죽어부난 나가 말양으네 전교회장으로 스물일곱부터 땡겼주게.

(질문) 계란 시아버지 하다가, 할아버지 하다가 돌아가시난 할머니가 하신거 마썸?
아니. 시아버지 살 때부터 허연. 신랑 죽으면, 신랑 회장 하당 죽어부난 그 발자국... 그저 그냥 그 다음으로 땡건. 그 때는 밀가루 한포씩 주든 아이들 먹이고 해신디. 그 봉사하든 여든하나까지 해주게. 여든한 살까지 해서. 청소도 다 나가 하고. 출리는거 무신거영 다 나가 허연. 여든하나 까지. 여든하나 넘으면 이젠 맡겨 낡 하는거 보든 맘에 맞지 않기도 허여.

(질문) 할아버진 어떻 행 돌아가신 마썸?

우리 신랑은 주사 잘못 맞앙 죽어불고. 병원장 데령 왕 주사 잘못 맞안.

(질문) 옛날엔 주사 잘못 맞앙 돌아가신 분들 하예?

응. 경하난 우리 영창도 안 보내고 약값까지 몬딱 물어서. 믿어부난. 윈 하지 말랜. 나 스물일곱이고 곧 서른에 신랑은 주사 맞앙 죽어부런. <4>

박 수산나 할머니는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1953년 27세 때부터 용수공소의 전교회장을 맡아 최근까지 용수공소 일을 했다. 50년 넘게 전교회장 일을 하면서 매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교회장과 더불어, 청소 및 공소 마당 풀 베기 등 성당환경 관리, 미사 준비 등을 해 왔다.

한국전쟁이 휴전을 할 무렵, 1953년 5월 조용환 신부가 춘천으로 복귀하게 되고, 제주 본당 보좌신부였던 김병준(요한) 신부가 신창 성당의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11월에 김병준 신부가 군중 신부로 모슬포에 입대하면서 제주본당의 보좌 구 가롤로 신부가 신창본당의 임시 주임을 겸하게 되었다.

이러던 중 1954년 4월 1일에 한림공소가 '한림본당'으로 승격됨에 따라 임 파트리치오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임명되고 신창본당은 다시 공소가 되었다. 이후 임 신부는 1955년 한경면 고산리에 고산공소와 한림읍 귀덕리에 귀덕공소를 설정하게 한다. 당시 임 신부는 한림, 신창 지역의 사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농민들이라 낮에 만날 수 없었어요. 미 해병대 신자에게서 얻은 지프차를 타고 밤 12시에서 새벽 2~3시까지 각 공소, 고산, 신창, 귀덕 등지를 돌아다니며 사목 했어요.
(성 이시돌 협회 이사장, 임 파트리치오 신부)⁴⁰⁾

40) 소공동체 소식지(2007.3), 「헌디모영」, 천주교 제주교구. p.4

고산과의 거리가 가까웠던 용수에서 지내던 박 수산나 할머니는 고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교활동을 했다.

이디 고산교회는 여기서 나들멍, 고산은 시추해주게. 경행 감사장도 댕는다. 고산은 내가 처음 댕기멍 다섯 사람 하멍 허연. 고산교회를 내가 처음 세운 사람. <5>

1955년 10월 신창공소의 신자들은 공소 경당을 증축하고 1956년 1월에는 사제관을 완공하였다. 이어 1957년 1월에 광주 지목구가 대목구로 승격되면서 4월에는 신창공소가 다시 '신창 본당'으로 승격하게 되고, 한림본당 보좌신부로 있던 양 하워드 신부가 제3대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1956년 9월에는 한경면 청수리에 청수공소, 1957년 10월에는 한경면 판포리에 판포공소, 11월에는 조수공소가 설정되었다. 이 세 공소의 설립에는 박 수산나 할머니의 시아버지였던 김계담 회장의 역할이 컸다.

난 용수 나와 버리니깐 용수만 책임정으네 해주게. 용수하당 고산 댕기멍 전교행 고산교회만 지선. 우리 시아버님이 이디서 청수 오랑 몇 달 살앙, 놈의 집 살멍 청수성당 짓고. 마지막으로 조수 강 성당 세워 댕 이디 앓앙 살당 죽어부런. 게난 고산은 나가 강 세우고, 이디 오랑 조수하고 청수는 우리 시아버님이 댕기멍 세웠주게. <6>

이처럼 본당 승격과 함께 신창본당 관할 공소가 용수, 고산, 청수, 판포, 조수까지 5개가 되었으며, 교세는 더욱더 확대 되었다. 이 당시 신자 수는 1956년 약 700명에 이르게 되어 성당 증축은 불가피하였고, 그래서 1957년 성당 증축(120평)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959년 6월 29일에 현 하롤드 주교의 집전으로 봉헌식을 가졌다. 이 당시 신자 수는 1,329명에 달하였다.



<사진 1> 옛 성전 모습

특히 이 당시에 양 하워드 신부가 있을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구호물품이 들어와 지역주민들에게 보급되었다. 이후에도 1960년대까지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보조금⁴¹⁾과 많은 구호물자가 성당을 통해 보급되면서 신자수가 많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때 당시 상황을 박 수산나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질문) 옛날에 6·25 끝난 다음에 막 어렵게 살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구호물품 줬잖아예? 밀가루영, 튀영...

응. 밀가루영 옷게.

(질문) 그런거 다 성당에서 나눠준거 마썸?

응. 경허연.

(질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난 마썸?

그때는 죽도 썬 주고 허난 경 하젠도 해주게 가난들 할 때난. 계난 죽들도 막 썬 먹이고 경 해주게. 강으네 막 타오고.

41)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p.209 재인용. <가톨릭시보>372호. 1963년 4월 28일 1961~62년 제주도가 본당별로 NCWC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다음과 같다.(단위:파운드)

본당	보조금	본당	보조금	본당	보조금
제주	3,760	신창	2,000	모슬포	300
서귀포	3,270	한림	2,000	계	11,330

(질문) 그래서 성당에 다니시기 시작한 분들도 계셨는지요?

응. 그때는 강냉이 배급 주고, 밀가루 배급 주고 경 해났주게. 성당으로. 경행 사람들이 막 땡기고 해난. <7>



<사진 2> 양 하워드 신부 송별기념

1958년 3월 2일에 레지오 마리아 운동⁴²⁾을 도입하여 ‘능하신 정녀’ 브레시디움을 창단하였다. 1959년 7월에는 한경면 용당리 출신 좌 가나시오로부터 교회 묘지 4,900평을 기증받았다.

이어 1962년 10월 제4대 주임으로 임명된 오 가롤로 신부는 1963년 10월에 한경평화협동조합을 창립하였다.⁴³⁾

박 수산나 할머니는 1953년 전교회장직을 맡으면서 이 지역의 전교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

영 앓양 명칭하게 보여도, 이거랏주게.(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우리 용당,용수에서.

42) 레지오마리아에는 ‘마리아의 군대’라는 뜻으로 천주교 조직 중의 하나로서 일종의 기도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레지오마리아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브레시디움	레지오마리아의 단위체
꾸리아	둘 이상의 브레시디움이 있을 때 설치해야 하는 관리기관
꼬미시움	몇 개의 꾸리아를 관장하는 상급 꾸리아
레지아	꼬미시움과 쉘나투스 중간 단계 평의회
쉘나투스	한 관구 이상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평의회
콘칠리움 레지오니스	레지오의 최고 관리권이 주어진 중앙 평의회

43) 면접 과정에서 조합의 성격이나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부분에 대하여 면접 대상자들로부터 자세히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으나, 과거 신창 마을에 성당에서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이 몇 년 동안 존재하다가 마을로 이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한경평화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하난 고산도 그때 돌아댱길 때 강으네 여섯 사람 이름 올령 임 신부님한테 여섯 사람 믿으켄 햄수다 허난 안 된댄. 막 하켄 허난, 임 신부님은 내 내력 잘 알아. 경행 교회 세원. 그때는 믿읍서, 믿읍서 하고, 죽도 썩 먹이고. 밀가루도 주고 할 때난. 그 때는 가난들 허난게. 그뻘 신창 걸영 강 미사 참여하고 경했주게. 난 옛날에 신창 하루에 세 번씩도 왔다가고 했주게. 아침에 새벽 미사 참여허영 왕으네 일도 하고. <8>

촌에는 전교하기가 힘들어. 노는 사람들이 어서부난. 일 허염시른 일 허멍 도리 애 기하멍 행으네 옛날엔 전교하고 해신디, 이젠 그냥 강 믿읍서, 믿읍서 해도 안 돼. 밤 낮 돌아 댱기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중략> 부지런히 댱겼주게. 밤낮 댱겨도 귀신도 못 만나고. 무서운 게 없드라고. <9>

내가 용수에서 700사람 가까이 영세 시켰다고. <중략> 용수 교우가 막 하났주게. 나가 한번에 51명 영세 시켜 상도 타나서. <10>



<사진 3> 1958년 부활 대축일 세례식이 끝나고
* 가장 앞이 박수산나 할머니이다.

이처럼 전교활동에 힘쓴 결과 1958년 부활 대축일에는 새 영세자 51명을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1959년 3월 용당·용수리 리민대회에서 용수리 3459번지 부지 428평을 기증받고 김계담 회장이 매입한 260평을 합하여 공소 부지를 확보하고, 1963년 7월 3일 용수공소가 완공되었다.

저거(용수공소) 50, 60평으로 지어서. 나 신부님한테 사택 지어달랜 안 하크매 공소만 크게 해주랜 행 공소 크게 지었주. 61년에 시작허영 63년에 끝났주게. <중략> 게난 옛날에는 저 집(공소) 지을 때 내가 마을 부인회장을 허난 돌맹이를 용수 마을에서 다 들여주난 저 집도 지었다고. <중략> 지집아이(여자아이) 하나 데령 목수들 밭 지어 맥이명 성당을 지어서. <11>

1963년 현 공소가 완성되면서 공소안에서 거주를 하던 할머니는 1964년에 용수공소 바로 앞에 있는 지금의 집으로 이사하고, 그곳에 살면서 평생을 성당 일을 보고 전교활동을 했다. 2남 1녀의 자녀를 둔 박 수산나 할머니는 남편 없이 자녀들을 키우고, 바쁜 성당 일을 보느라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난 난 돈은 어떻 벌었냐면, 도야지 질령 새끼 내고, 소 질령...풀 뱅(베서) 주른 새끼 내우명. 경허영 남의 밭 2000평 병작허영 반 갈랑 곡석도 갈르명 경허명... 게난 몸뚱이가 너무 병신되언. 옛날엔 짐을 경 지언. 기운도 좋고 하난게. 이젠 아무것도 아니주. 젊을 때는 용기도 있고 기운도 있고 하난디. 늙어부난 다리 몸뚱이 다 파스들 붙영 고딱 하지도 못 허여. <중략> 게난 우린 옛날엔 아침에 신창 강으네 미사 들여뵈와서 아홉시에 일 갔당 다섯시쯤에 집에 와서 목욕하고, 마루 닦아뵈 나가든 밤 새냥 돌아 댕기명 경 해주게. <12>

1967년 3월 5일에는 신창본당 출신 첫 사제인 고승욱(아우구스티노) 신부의 서품식이 있었고, 1970년 1월 7대 주임신부인 김병준(요한) 신부는 사도회를 발족하였다.

2) 천주교의 교세 안정기(1970~1990)

1970년대 이후 신창성당의 교세는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신자수가 1970년 1,891명, 1975년에는 2,251명, 1980년에는 2,387명으로 2,000여 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마을주민의 60~70%가 신자일 정도로 교세가 많이 확대된 신창성당의 당시 상황을 박 수산나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옛날에 우리 60명이 새벽송을 도난, 용당·용수를 도난 아침 6시까지 새벽송을 돌아나서. <13>

이처럼 교세가 확장되어 1975년 2월 사도회를 ‘사목협의회’로 개편하게 된다. 그리고 1976년 5월에는 두 번째 본당 출신 고승헌(마르코) 신부의 서품식이 있었다. 1978년 12월에 제10대주임 이대원(미카엘) 신부는 수녀원을 신축 봉헌하고 ‘인보성체수도회’ 수녀들을 초청하였으며, 1959년에 기증받은 조수리의 부지에 공원묘지를 조성하였고, 1983년 1월에 세 번째 본당 출신 양영수(베드로) 신부의 서품식이 있었다. 1985년 9월에는 신창 성이시돌 유치원을 개원하여 당시 40명의 원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유치원의 개원은 유아교육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1988년 9월 부임한 설 요한 신부는 성당 신축 계획을 세워 이듬해 3월 성당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신창성당 평신도협의회 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질문) 90년대 초에 성당 새로 지으실 때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지.

(질문) 모금은 잘 되셨나요?

잘 됐지. 신창출신 평협회장들이 서, 너이 되니깐 꽤 그런대로 했지. 출신신부님들도 있으니깐. (신창성당 평신도협의회 관계자, 좌■■,남)

1990년 2월 고산 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고산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됨에 따라 한경면 안에 본당이 두 개가 되었는데, 차로 이동을 하면 5분 거리인 신창과 고산에 각각 본당이 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봐도 흔하지 않은 경우이다. 고산성당 초대 주임 신부였던 남◎◎ 신부는 그럼에도 고산에 본당이 생기게 된 배경과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공소 상태에서. 사실 본당이 되면 운영 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경비가 소요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경비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재정적으로 어떤 본당을 하려면 최소한의 재정적인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시작에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주님을 위한 사업이니깐 그건 또 뭐 나누면 되는 거니깐 별로 문제

는 안 돼. 나도 처음에는 본당이 왜 됐는지는 의아해 했는데, 사실 고산이 본당이 되고 안 되고는 사회적인 여건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청수 갔다 오다가... 내가 그때 사제관에서 못 지냈기 때문에 방 하나를 빌려서 밖에서 지냈다고. 학생 자취하는 방 하나 빌려서. 방이 없었으니깐. 그때 그 동네 아파트도 없었으니깐 방 한 칸 빌려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사무 보고 다 했어. 옆에 부엌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내가 성당 들렀다가 그 집으로 가야 되잖아. 거리상으로는 가까우니깐... 그런데 밤에 성당에 불이 켜졌더라고. 불이. 9시쯤 넘은 시간에. 내가 처음 공소 갔다 오고 했을 때니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20~30명 모여가지고 기도를 받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끝나기를 기다렸어. 무슨 기도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10년 전부터 고산에 본당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럼 지금은 무슨 기도냐고 하니깐, 지금은 신부님 생활 할 수 있도록... 하하하...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길래 그때는 정말 쩧했어. 지금은 웃지만 정말 쩧했어. 그때 아주 그 얘기 들을 때 감정이 북받쳐 올 정도로... 이렇게 본당 된 이유가 할머니들 매일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모시고,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 했었고. 그 갈망 때문에. 그래서 본당이 됐지. (고산성당 초대 주임 남●● 신부)

고산공소의 신자들이 본당승격의 염원을 갖고 노력한 결과, 결국 본당으로 승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창성당의 관할지역을 재정비하게 된다. 당시 신창성당에는 용수·조수·관포·청수 공소가 있었는데, 청수와 용수 중 고산성당의 관할 공소로 편입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기존에 속한 성당을 떠나 고산성당의 관할로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용수공수 전교회장이었던 박 수산나 할머니는 그 때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우리 용수가 고산드레 불을건디 나 때문에 저기(신창)에 붙었주게. 그때 용수 사람, 용당 사람 가르고 할거라부난 내가 신창드레 붙어 부렸주게. 계난 용수가 신창드레 왔주게 원래는 고산 같건디. 내가 고산드레 붙어불른 용당 사람들이 공소가 어실꺼주게. 계난 나가 신창으로... 아님 여긴 원래 고산 지역이라. <14>

청수의 경우도 고산성당 관할로 편입되는 것을 반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남●● 신부는 그 때 청수공소의 상황과 신창성당 소속인 청수공소를 고산성당

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였다고 한다.

청수 같은 경우는 생활 거주지가... 한경면 면 소재지가 신창이잖아? 신창에 와서 일 볼일이 많잖아. 면사무소가 있으니깐.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서 항의가 왔어. 왜냐 하면 자기네는 신창에 남겠다, 고산에 붙을 이유가 없다, 고산도 공소고 자기네도 공소인데 공소에 붙을 이유가 없다, 또 생활권이 신창이다, 면소재지가... 그래서 자기네는 신창에 남았으면 좋겠다, 왜 고산에 붙이나... 그래서 청수 같은데는 주일날 가서 미사를 못 해줬어. 신창에서. 평일에 가서 해줬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하면, 좋다 그러면 고산 오는 대신에 주일에 미사 해주고, 평일에 미사 한번 해준다, 교리도 가르쳐준다 하니깐... 그러면 자기네는 좋잖아? 그래서 내가 그 조건 해주니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불만을 무마 했다고. 어떤 불편함 때문에 그 쪽에서 많이 반대를 했지. (고산성당 초대주임 남○○ 신부)

이렇게 해서 고산성당은 청수공소와 모슬포 성당에서 이관 받은 무릉공소를 관할하게 되었고, 신창성당 관할 공소는 용수·조수·판포가 되었다. 이는 신창지역의 관할 구역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된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신창성당 관할지역, 특히 신창리 같은 경우 전국 천주교 신자수 비율보다 4배 정도가 높은 비율의 신자들이 한 마을에서 신앙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변 다른 신창성당 관할지역도 신창리 만큼은 아니지만 신자 비율이 높다. 본 논문에서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창지역에 천주교 교세가 크게 확장하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시대적 원인으로 신창성당의 교세가 크게 확장된 시기를 보면 1950년부터 1980년 초반 까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신창리 마을 주민의 70% 이상이 천주교 신자였을 정도로 그 교세는 상당했다. 특히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주교 신자가 늘어나게 된 배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성당을 통한 구호물자의 보급이다. 1950년 한국전쟁 직후 전국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웠다. 이 때 미국 등 해외로부터 많은 구호물자가 들어왔다. 이러한 구호물자들이 특히 성당이나 교회를 통하여 보급되는데, 구호물자를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성당으로 왔고 이 과정에서 성당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다. 이러한 부분은 면접 대상자의 대부분의 응답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50년도에 6·25가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구호물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구호물자 배급이 성당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깐, 그 당시 누구에게든지, 지역주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지만 성당에 그렇게 오다 보니깐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성당에 나오면 더 배급이나 그런거에 대해서 더 소외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나왔던 거고. (신창성당 주임 김◆◆ 신부)

옛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막 어려울 때니깐 원조 물자가 들어올 때 그런 것을 배급받으려고 많이 다녔지. 우유 같은거, 밀가루 같은 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막 청바지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몰라도 구호물품으로 많이 왔어. 옛날 어려울 때는 그런거 때문에도 많이 다니고 그랬을 꺼라. (신창리 관계자 김●●, 남, 비신자)

미국 사람들의 감시 하에 옷이라든지 구호물자라든지, 담요라든지, 이런 것을 대개 적십자 이런 계통에서 보내온 것을 그래도 교회는 그냥 행정관청에서 하면 끝발 있고 그런게... 그래도 교회는 양심적인 사람들이니까 분배하는데 조금 믿을 수 있지, 그래도 교회가 좀 평등하지. 그래서 그 때 춥고 배고프니깐 교회를 다녀야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여. 그 저 강냉이 가루나 밀가루든지, 우유가루든지, 춥고 배고플 때니깐. (교○○, 남, 비신자)

그 때 구호물자를 주면서 신자들을 많이 확보를 했었지. 그리고 강냉이 죽 썰서 마을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고 했지. <중략> 그건 전국적으로 다 그 영향은 있었지. 구호물자 관계는. 어려우니깐 우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영향도 있었어. (신창성당 출신 교○○ 신부)

이처럼 구호물자가 배급되면서 주민들은 구호물자를 더 받기 위해서든 그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의해서든, 성당의 신자수는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구호물자의 보급은 지역주민의 구민활동, 즉 지역주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⁴⁴⁾

44) 이에 대해서는 논문의 pp. 55~57 부분을 참조 바란다.

다음으로, 열악한 지역적 여건 보완도 천주교신자가 증가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다. 종교는 사람들이 모이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신창지역에서도 확인 된다.

그 당시에는 지역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꺼리들이 많이 없었으니깐 종교가 그런 역할을 했었죠.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신창성당 주임 김◆◆ 신부)

마지막으로, 정부시책에 의한 영향도 천주교 신자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신창성당 주임 신부인 김◆◆ 신부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여러 가지 미신 행위를 금지 시켰는데, 민간신앙 등을 믿었던 지역주민들이 이를 금지 시키자 종교적인 무언가를 찾게 되었고, 그러던 중 기존 신창 마을에서 융성하던 천주교를 많이 찾게 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면접일자 2007.3.20)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시대적 상황에 따른 원인은 신창성당의 교세확장의 배경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당시 천주교 교세를 확장시키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의식적 부분이다. 이 부분은 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와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먼저, 천주교·성직자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 신부는 신창지역에 천주교 신자가 많게 된 이유를 천주교와 성직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신부님들이 일찍부터 상주하셨고. 그 분들이 모든 면에서 엘리트 아니야? 인격도 그렇고 교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지성인이었지. 글자 그대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신부님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면서부터 가톨릭은 이런 곳이로구나, 신성한 곳이로구나, 깨끗한 곳이로구나, 이런 인식이 커져갔지.

우리 아버지도 어느 친척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미사 한다고 해서 가 봤는데, 신부님이 미사 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에 반하시면서 가톨릭의 모습을 거기에서 본

거야. 그래서 자기도 성당에 가야겠다 해서 우리 어머니랑 성당에 나가시게 됐지.

성직자들의 모습, 처음부터 성직자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그 분들의 생활, 말씀, 행동이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하게 됐지. 그래서 그 분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됐어.

신부님들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면서부터 신부님으로부터 그런 도움의 혜택도 받으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 우리 마을은 그랬어. 다들 마을은 구호물자 때문에 우선 가톨릭에 들어가겠다는 인식을 했지만 우리 마을은 그 전에 가톨릭에 대한 인식, 신부님에 대하여 보는 인식이 달랐었어. 그래서 멋진 신부님, 훌륭한 신부님으로부터 그 분들을 통해서 배고픔까지 해결해 줬단 말이지. 그래서 더 가톨릭이 융성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부님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자동차 내주고, 아픈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지나가는 길에 차 태워주고, 그렇게 했었어. 진짜 선교사 역할을 하셨지. 성직자들이. 그런 것들이 신자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에 따라 가톨릭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지.

이처럼 신창지역 주민들이 천주교, 특히 성직자들에 대해 가진 인식은 아주 긍정적이었다. 이 지역은 사제와 수도자의 배출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도 성직에 대한 존경심, 동경심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다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수녀님들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자 한림 금방에 사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 지역에 살고 있는 환자들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중략> 이시돌의원은 처음에는 30%의 환자는 무료로 치료하고 70%의 환자에게는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가난한 환자가 찾아오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60%가 무료이고 40%만 치료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략> 맥그린치(임 파트리치오) 신부님은 이시돌 목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Ep어내어 이시돌병원 운영비로 내놓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시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이 나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성당을 찾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⁴⁵⁾

성 이시돌 의원에서는 제주도 전 지역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실시하였는데,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고 무료 봉사를 함으로써 한림 및 제주도민들에게 천주교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자 수도 증가하면서 교세가 크게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⁴⁵⁾

천주교, 성직자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의 변화는 천주교의 교세 확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신창성당도 이와 마찬가지로 성직자들이 신창지역에 부임해 오면서 주민들에게 그들의 선구자적·선진적·엘리트적인 모습 등을 보여 주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의 성당, 성직자 등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성당으로 모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수의 주민들이 성당을 다니는 분위기도 주민의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서도 보았듯이 과거 신창지역에서는 신자 비율이 70% 이상이였다. 즉 신창지역에서는 많은 수의 지역 주민들이 성당에 나가게 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음을 알 수 있다. 고○○ 신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시 마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신창 가까이에 두모에 교회가 있지. 신창에서 거기 가는 사람 별로 없어. 옛날부터 누구네 집은 예배당 집이라고, 저긴 절간집,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어울리지도 못해. <중략> 전에 신창사람들 중심으로 하면 60~70% 됐었지. 그러니깐 성당 안 다니는 사람은 같이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불교신자, 예배당 신자들은 누구네 집 흔히 드러나. 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 하드라고. 그래서 신창에 살려면 당연히 가톨릭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

내가 어렸을 때도, 물론 신학생이긴 했지만. 우리랑 같이 놀려면 성당에 가야 돼. 이 시간에 성당에 가는 시간이고 하면 성당에 갔다 와서. 같이 어울려서 다니려면 우리랑 같이 다녀야 돼. 안 그러면 우리랑 같이 놀지 못할 정도로. 성당 안 다니는 애들은 따돌림을 받는 느낌을 받았었어. 다 가톨릭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됐었고.

45) 박재형(1993), 「삶의 희망을 준 목자 맥그린치」, 성 황석두 루가 서원, pp132~133

46) 김두욱, 전개서. pp.64~65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신자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의 생활태도가 달라진 거야. 기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성당에 가면서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고 엘리트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깐 자연히 마을사람들도 점점 가톨릭을 모르던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그런 걸 우리는 느꼈었어. 성당에 다닐 때는 당당하고, 성당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한발짝 뒤로 물러나게 되고. 마을 분위기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이와 같이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에서 성당에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다녔고 성당 신자들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면 동네 안에서 생활하거나 함께 어울려서 지낸다거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웠던 분위기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성당에 나가게 됐다.

세 번째로 신창성당 출신 사제, 수도자의 영향이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다른 지방의 교구에 비하여 그 규모가 상당히 작다. 그러나 신창성당이라는 시골의 본당에서 사제와 수도자가 다른 본당에 비하여 많이 배출 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4명의 사제가 배출되었고, 2007년에 1명의 사제가 더 배출될 예정이다. 그리고 수녀를 포함한 수도자의 배출은 워낙 많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녀는 아주 많다. 내가 봐도. 95년, 94년쯤에 45명이라고 들었거든. 수도자들. 그때 신부님이 파악해 보니깐, 이게 신창리만이 아니라 한경면에서 신창본당에서 관할하는 지역 출신 수도자들이. 그 후에 더 들어 갔으니깐 50~60명 되겠지. 지금 고산이랑 신창본당 두 개가 되니깐 나눠졌지만 그래도 많지. (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

다음의 양▲▲씨와 고○○ 신부의 인터뷰 내용에서 살펴보면 신창출신의 사제와 수도자들은 마을유자의지처·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제·수도자들의 배출은 일반 신자들과 더불어 마을 주민 모두에게 자랑이었으며, 그들로 인해 주민들이 성당에 다니게 되는 경우도 많게 된 것이다.

원래 한 집 건너 신자들이 있는 신창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신창에 서는 사제, 신부 네 사람이 확실하게 되었고, 한 명은 로마에 가서 신부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도에서나 국내에서도 한 마을에 천주교가, 또 신부가 탄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을의 신자들이 열성적이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부합이 되었다 는... 자랑거리로 남았습니다. (양▲▲, 남)

마을에서 큰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큰 신부님(고△△ 신부) 이나 나를 찾아오고 해결방법을 강구해. 얘기들 잘 못 돼서 사법기관에 연결이 되면 우리한테 와서 부탁을 하고 잘 얘기 해달라고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직자들을 큰 의지처로 여기지. (신창 출신 고○○ 신부)

3. 신창지역 교세의 약화(1991 이후)

1989년 시작한 새 성당건립추진에 따라 1992년 10월에 성당 건립 공사를 착 공하여 2년만인 1994년인 6월에 완공함과 동시에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필요한 신부는 건강이 악화되어 1996년 11월 본국으로 돌아갔으나 이듬해 2월에 선종 했다.



<사진 4> 새 성전 봉헌식

1990년에 고산공소가 본당으로 승격되어 고산과 청수가 분리됨에 따라 신창성당의 신자수는 1987년 2,371명에서 1990년 1,496명으로 줄게 되었다. 이는 한편으로 고산과 청수의 신자수가 고산성당으로 속하게 되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1980~90년대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농어촌지역의 젊은 인구들이 외지로 많이 떠났기 때문에 신자수가 점차 줄어드는 결과를 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세 변모 현황을 나타낸 <표9>를 보면 1990년도를 기점으로 신창성당의 신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표 9> 신창성당 교세 변모 현황

연도	1952	1956	1959	1970	1975	1980	1987	1990	1995	1999
신자수	350	700	1,329	1,891	2,251	2,387	2,371	1,469	1,477	1,214

자료 :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p.398

이후 네 번째 본당 출신 신부인 순교복자수도회 소속 강석진(요셉) 신부가 서품을 받았다. 2007년 3월 현재 신창성당에서는 네 명의 사제를 배출하였다. 1994년에는 판포공소가 폐쇄되었다. 그리고 박 수산나 할머니는 최근까지도 전교활동에 힘쓴 것으로 보인다.

요새 영 아파도 요디 사람 강으네 한 달 동안 기도해 주멍, 가르치멍 행으네 죽어 갈 때 영세 받았 돌아간. <15>

게난 여든 하나 나도록 성당 청소하고, 봉사하고 한 것이 이젠 여든 둘 나부난, 풀베는 거 같은 건 금년까진 해도 다음은 못 하크라. <16>

최근의 신창성당은 젊은 사람들이 없고, 신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하여 성당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신창성당의 연령별 신자수를 보면<표 10>과 같다.

<표 10> 신창성당 연령별 신자수

	남	여
만0세	0	1
만1-6세	12	13
만7-12세	17	17
만13-19세	19	28
만20-29세	61	60
만30-39세	61	71
만40-49세	38	46
만50-59세	42	56
만60-69세	46	77
만70세 이상	35	149
기타	0	19
합계	331	537

자료 : 신창성당 (2007.3 통계자료)

50세 이상 신자의 비율이 전체 신자수에 약 46.7%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신창성당의 신자들 중 고령의 신자가 상당히 많다. 특히 만 70세 이상의 신자수를 보면, 여성 신자수가 149명으로 전체 여성 신자수에 27.7%, 전체 신자수에 17.1%를 차지하여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20~39세 사이의 젊은 사람의 신자비율이 전체 신자수에 약 29.1%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연구자가 신창성당을 방문하여 볼 때에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하여 신창성당 주임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인구 중에서 99%가 밖에 나가서 사는데, 사는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지만 살고 있지 않아요. 다 떠나 있고, 시나 육지에 가 있다가 주말에나 오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성당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주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깐 한 40대 정도 되신 분들도 나와서 뭘 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분들 활동도 많이 약화되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는 열심히 했지만 그 분들이 20년 전, 30년 전 단체 꾸려서 하시던 분들이 지금 그대로 하세요. 그 분들이 연세 드시니까 활력 있게 움직일 수가 없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신창성당 주임 김 ◆◆ 신부)

그리고 신창성당 평신도협의회 관계자 좌■■■씨도 현재 성당에서 주로 활동하고 협의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나이가 50~60대라며,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젊은 신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성당 운영에 있어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도시화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농어촌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 따라 타 지역으로 나가게 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는 점차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성당에 젊은 사람 없는 건 어디나 마찬가지지. 육지도 마찬가지. 어쩔 수가 없어. 가는 사람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아도 할 일거리가 없어. 시골에서 뭘 해? 젊은 사람들이 빈둥거릴 수도 없고. 그러니깐 젊은 사람들이 없지. 일단 수입이 없어. 농촌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남아 있지만 땅 없는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 (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

이에 따라 성당 운영에서 젊은 신자의 부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우선 신창성당의 심신단체 조직⁴⁷⁾ 중 학생회나 청년회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성당에서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주일학교 운영과 성당에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신창성당 주임 김◆◆ 신부와의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질문) 주일학교도 원래는 중단 되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시작하신 건가요?

작년 봄부터 다시 시작을 했죠. 여러해 동안 주일학교가 없었죠. 가장 큰 이유는 주일학교를 운영하려면, 아이들은 모아서 하려고 하면 애들은 있는데, 여기 지금 봉사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20대가 없으니깐 젊은 엄마들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어머니 모임 생긴 게 2년 좀 지났고.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도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이 몇 사람 없으시고 하니깐 힘들었는데, 봉사자가 있고 없고 무조건 시작

47) 신창성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10개의 빠른시디움과 연도회, 성가대, 울뜨레아, 여성연합회, 테레사회, 안나회, 마리아회(조수), 바울라회가 있다. 이중 성가대는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축일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여성단체가 많이 차지한다.

을 한다고 해서 애들을 모아놓고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 거죠. 중고등부는 교리는 제가 직접 하고요.

(질문) 50주년 행사 준비 하실 때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신부님께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사람들까지 꺾어서 했죠. 제가 청년들 몇 명 서울에서 내려오라 해서 몇 명들이 여기 며칠 있으면서 도와줬죠. (신창성당 주임 김◆◆ 신부)

농어촌 지역 성당에서 젊은 신자들의 부재는 신창성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천주교의 도시사목과 농어촌사목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일정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먼저 도시사목과 농촌사목에 대한 이야기를 고산 성당 초대 주임 신부였고 현 제주시 노형성당 주임 신부인 남●● 신부와 의 인터뷰를 통하여 들어보았다.

그러니깐 근본적인 것은 시골은 사실 협조자들, 교육시키는... 신부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리교사, 교리를 가르칠 사람, 함께 나눌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시골의 어려움은 그거야. 신부가 다 해야 되니깐. 그런데 도시는 재원이 많으니깐 교육을 시키면 그 자원이...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 설 수 있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시골은 이런 자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 생각해. 사실 교회는 재정 같은 것은 없더라도 도와주시니깐 되는데, 사실은 인적자원이야. 사실 복음도 인간 손을 빌어서 하는데, 손이 필요하잖아? 시골은 손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 차이야. 여기는 사실 너무 많아서 다 써야 하는데 다 못 쓰잖아. <중략> 그건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지. 사회에서 오는 이반 현상이지. 교회가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교육, 수입 등이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깐 시골에는 자리가 없어진 거지. 그래서 이것이 자연히 교회에도 미치게 된 거지. 교회에서 사람을 내보내지는 않잖아. (남●● 신부)

신창 지역을 비롯한 다른 농어촌 지역도 사목을 함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부족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위와 같이 교세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창성당은 2006년 6월 29일에는 본당 승격 50주년을 맞았다.

다음에서는 천주교가 신창지역 관할 지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박 수산나 할머니는 현재까지도 매일 용수공소에 가서 공소를 돌보고, 기도를 하고, 동네 어르신 분들의 전교를 위해 아프신 몸을 이끌고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깊은 신앙심으로 평생을 신창성당의 발전과 전교에 힘써 온 박 수산나 할머니 같은 신자가 있었기에 신창성당은 전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교세 확장을 이루고 발전할 수 있었으며,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이제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기도 하고. 교황님,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다 기도하고. 기도 서너시간 햄시든 해가 뜨주. 목주신공 다 5단씩 하고, 가정기도 하고 경하고. 새벽에 세네시에 일어남 한다. <17>



IV. 신창지역에서 천주교의 영향

1935년 신창지역에 처음 공소가 생긴 이래 천주교가 신창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전래 되면서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교세 확장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큰 교세 확장 만큼 천주교에 의한 영향을 적지 않게 받게 되었다. 신창지역에 천주교의 지역화가 미친 영향은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면접 내용을 토대로 복지 부분에 중점을 두어 크게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과 주민교육에의 기여, 그리고 주민생활 편의 도모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1.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민중계몽과 근대적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이야기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분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초래하여 조선시대의 종식 및 일제하의 계몽교육활동, 민중의식 나아가 인권의식의 고취에 기여한 점, 둘째, 개항기에서 한말까지는 중화적 세계관의 붕괴과정에서 서구 충격을 대변하는 문화적 충격과 근대적 세계관 형성에 기여한 점, 셋째, 서구의 근대적 의식을 한국 사회에 전파하는 통로역할과 동시에 문화종속에 기여한 측면이다.⁴⁸⁾

이처럼 천주교를 통한 의식 개선, 계몽, 새로운 의식 형성 등의 모습은 신창지역에 전래 된 천주교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아 이러한 의식 개선·향상, 그리고 계몽 등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먼저, 지역주민의 의식 개선에 미친 영향이다. 신창성당의 교세가 확장됨에 따라 신자수가 늘어나게 되고, 성당은 그들의 의식 개선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대하여 신창성당 출신 고○○신부의 응답 내용과 신창리 마을 관계자 김●●씨의 응답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48) 김재득 외, 전계서. p.262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 의식개혁이라든지, 생활방식도 모든 예의범절도 가톨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계몽이 됐지. <중략> 진짜 그리스도 정신, 하느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에 무엇인가 공헌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 그리스도 정신, 즉 가톨릭을 통한 그 정신은 대단했었어. <중략> 성직자에 대한 인식이 달랐어. 정말로 문맹이나 마찬가지였던 마을에 그런 지성인들이, 외국인들이 말이지. 멋진 사람들이 와서 가톨릭 신앙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추한 행동을 보였으면 가톨릭이 딱혀 들어가지 않지! 말썹이라든지 모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지. 그렇게 세계의 이치를 가르쳐 줄 사람들은 없었지. 그래서 그 신부님들이 선구자나 계몽자나 마찬가지였지. <중략> 많이 계몽을 시켰지. 사고방식, 생활방식, 의식구조를 많이 변화 시켰어. 그렇다고 예배당이 나쁘다, 불교가 나쁘다, 샤머니즘 나쁘다, 이렇게는 안했어. 차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만들었어. 의식, 인식이 달라지게 했어. 가톨릭에 대한 인식도 그렇지만 의식의 개선이 되었지. 생활양식도 변해가고 자연히. (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

성당에 가야 되고, 안가고 그런 거는 없고. 배타하지도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하지도 않고. 특히 천주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배타하는 것은 아니잖아. (신창리 관계자 김●●, 남, 비신자)

이처럼 천주교 신자들은 타 종교를 배타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샤머니즘과 같은 토속신앙이나 미신행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신창성당 관할 지역 중 본당이 위치한 신창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타종교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무속 행위도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표11>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과거부터 천주교 신자가 마을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유입되기가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천주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에 대한 의식이나 행위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11> 제주도 한경면 종교 현황⁴⁹⁾

번호	마을	불교		천주교		개신교		마을 공동제 유무		비고 (마을 공동제)
		신도수	구성비 (시설수)	신도수	구성비 (시설수)	신도수	구성비 (시설수)	마을 포제	마을 당제	
1	고산리	280	9.6 (3)	836	28.7 (1)	155	5.3 (1)		0	본향 당제
2	낙천리	40	16.4 (1)							
3	두모리					80	13.6 (1)		0	해신제
4	신창리			737	70.0 (1)					
5	용당리	50	14.4 (1)			15	4.3 (1)			
6	용수리			230	38.9 (1)	90	15.2 (2)		0	절부 암제
7	저지리	110	9.7 (2)			60	5.3 (1)		0	본향 당제
8	조수리			199	19.1 (1)	75	7.2 (1)		0	본향 당제
9	청수리	70	13.9 (1)	154	30.6 (1)	35	7.0 (1)			
10	관포리	200	30.1 (1)			30	4.5 (1)			
	계	750	7.3 (9)	2156	21.1 (5)	540	5.3 (9)	0	4	

자료 : 김두옥, 전게서. p.104

그리고 신창지역에서 무속에 대한 행위가 과거에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음은 다음의 면접자들의 응답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우리 마을제는 없어. 예를 들면 미신행위, 비 안 오면 하는 기우제 같은 거 없었어. 신창에는 아주 옛날 아니면 천주교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있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심하지 안 해. 어디 용수 같은 데는 있었지만. 기우제 같은 거. 우리는 미신이 없어.

49) 1998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앞에서 조사한 각 마을 인구 통계와 천주교 신자수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각 마을에 종교시설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신자수 통계를 보고 있어 타 마을에서 다른 마을의 종교시설을 이용할 경우를 배제하고 있다.

여기가 천주교 지역인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어. (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

신창지역 특징, 미신당이 전혀... 옛날에는 있었겠지. 하지만 미신행위 하나도 없어. 토데미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봐도. 그런 것이 벌써 엘리트가 됐다는 것이야. (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

어부들이 이제 바다에 나가려면 아침 새벽에 공양을 간단히 드려서 오늘 하루도 풍어... 또는 바다에 갔다옵니다 하는 마음속으로 빌고 나가는 곳이 있었고, 지금 바로 이 밑에 양식장 건너편에 큰 할망당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거기 열심히 다니다가 성당으로 가게 됐는데. <중략> 예전에 포제동산이라고 해서 구 중학교 위에 터가 있는데, 옛 설에는 제가 있었다 하는데 확실하게 얘기 하는 분이 없어서. 명칭만큼은 좀 듣습니다. (양▲▲, 남)

신창지역에서 무속신앙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천주교에 의해서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미신 행위를 금하고 있는 천주교를 믿는 신자가 많은데서 기인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신창지역은 제주시권과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부족한 농토 등으로 삶이 윤택하지도 않은 마을이었지만, 성직자와 성당의 영향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식수준 등이 많이 높아졌다. 나아가 천주교 신자들의 의식 수준 향상은 그들의 비신자 식구들이나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전체적인 의식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이처럼 신창성당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특히 신창지역이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의식 수준이 높고, 생활수준도 높았음을 보여주는 예로 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어. 고산에서 이발사 하는 아이가 있는데, 신창에 와서 이발을 하는데 신창 젊은이들하고 고산 젊은이들하고 다르다는 거야. 왜 그랬더니? 고산 젊은이들은 돈이 생기면 우선 먹고 노는 데 주로 사용하는데, 신창 젊은이들은 와서 보니깐 아니라고. 자기 품위 유지 위해 신경 쓴다고. 머리도 단정하고 복장도 그렇고. 그래서 다르다고. 가이가 그렇게 말했었고. 그리고 병원장이 한 분 계셨는데, 고의원. 지금은 돌

아가셨지만, 고산에서 오래 하셨어. 나중에 마을사람들이 땅을 쥐서 신창에 와서 집을 지어서 병원을 개업 했는데. 신창 사람들 신사라고 표현을 해. 고산에 있으면 밤중에 싸워서 터져서 병원 두들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창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양반들이 사는 동네라고.

그 정도까지 가톨릭의 영향이 주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지. 양반은 아니지만 신사도적인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가톨릭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암암리에 몸에 배었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싸움 나고 이런 것을 없어. 그래서 신창에서는 제일 사고·사건이 안나. 살인행위, 자살행위 이런 게 없어. 한경면에 오는 파출소 경찰들이 진급이 안 될 정도로. 사고가 나야 잘 해결해서 점수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노니깐. 그 정도까지. 이제도 경해. 크게 강도 맞거나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마을사람들이 바람났다거나 처녀가 임신했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 다른 마을사람들에 대해선 많이 들었지.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대단했어. 자살한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뎡가, 크게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 자살했지. 그 다음부터가 잘 없었어. 그렇게 드물어. 그리고 크게 싸워서 법정에서 서고 원수지고 이런 경우도 없고. 그렇게 까지 서로 주체성이다. 홀로 주체성이 아니고. 나만 잘 살고 이런 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 정신 그대로, 함께 하는 정신. 그러니깐 서로 피해를 안 주려고 상대방에게 서로 칭찬, 서로 좋은 인식을 심어주려고 하니깐 다 멋진 사람들이 되었지. (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

다음은 지역화합을 통한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에 기여한 점이다. 종교는 사회통합에 일부 공헌할 수 있지만, 갈등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반드시 사회통합의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⁵⁰⁾ 따라서 지역주민의 화합 부분을 살펴봄에 있어 신자들의 화합문제와 더불어 비신자가 생각하고 있는 천주교에 대한 인식과 그들 상호간의 화합의 문제, 또한 지역 전체적인 화합문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면접 대상들은 천주교의 영향으로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먼저 신자들의 응답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질문) 천주교가 공동체, 사람들의 화합이나 협동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하시나요?

그럼 영향을 미쳤지. 서로 함께 하는 주체성 그런 것을 지녔지. 공동으로 함께 한

50) 김종서(2006), 「종교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p.181

다는.

(질문) 마을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천주교 신자가 늘면서 기존에 마을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특별한 갈등은 그런대로 없었어. 그냥 왜냐하면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의 가르침대로 신부님의 말씀대로 착실하게 열심히 살았거든. 횡포를 부리거나 마을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을 한다거나 마을에 누를 끼치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 (신창성당 출신 교○○ 신부)

천주교 신자들이, 교회 신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싸우는 것이 조금은 줄어들고, 말도 함부로 안하도록 노력해나가는 거고, 항상 반성하니깐. (신창성당 평신도협의회 관계자 좌■■■, 남)

다음으로 비신자의 경우를 보면 대체적으로 천주교가 지역 주민들, 특히 신자와 비신자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화합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하고, 뭐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이 있던가, 그 사람들이 신도가 아니라 해서 좀 안 좋게 대하던가, 그런 것은 없어. 느끼지도 않고. 아예 없어. (신창리 관계자 김●●, 남, 비신자)

신도와 비신도간에 마찰이 없다. 단순히 종교는 믿는 것일 뿐. (고**, 여, 비신자)

그리고 다음 응답자들의 답변을 보면 마을의 행사에도 천주교가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

성당에서 맡은 일이 많고 바쁘니깐 다른 일을 맡기고 싶어도 못 맡기는 그런 건 없어. 그런 생각은 나도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감사 같은 경우에는 성당 다닌다. 그런 거 때문에 마을일을 맡기는데 그 사람 성당 다녀서 바빠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다른 곳도 마찬가지라. 그거에 어떤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신창리 관계자 김●●, 남, 비신자)

마을 주민 중 성당에 다니는 신자가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성당에 나가는 일요일이나 성당에 큰 행사가 있을 경우는 마을 행사를 조정하며 서로 협조하였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을 동원한다고 하면, 성당에 큰 행사 모임이 있으면 마을 행사가 안 되버려. 그래서 마을에서 피해줬어. 성당에서 부활대축일이다, 성탄대축일이다 하면 마을에서 그날은 행사를 하지 않고 피해줬어. (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

(질문)성당 행사를 하시면서 마을과의 부분도 있잖아요? 성당행사도 있는데 마을 행사와도 겹치게 도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창에는, 나도 마을에 감사 말고 하는데, 되도록 주일(일요일)을 피해서 하도록 하지. 그만큼 권위가 있지. 이 마을에서 하는 것은. 왜냐하면 성당 신자들이 안 나가면 행사 진행하기가 힘들니깐. (신창성당 평신도협의회 관계자 좌■■, 남)

이처럼 지역 주민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천주교 신자들과 그 외의 주민들 간에는 갈등 없이 상호간 협조해 오고 있다.

그러나 몇 명의 응답자들은 지역에서의 갈등 또는 성당이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질문) 천주교가 지역 사회의 단합이라든지 공동체의식이라든지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그리고 발전에 기여도 못하지. 왜냐면 **교회 재단, 이런 재단은 봉사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돕는데, 천주교는 돈이 많아야 지역 사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데, 아니 무슨 일하겠다고 해서 기도를 백날 드리면 그게 절대 안 되어. <중략> 여기서는 천주교하고 이런 마을하고는 별개라. 그건 정확하여. 그리고 신창리민만 신창 천주교 다니면 그럴 수도 있지. 조수, 청수, 다른 지역도 다 속해 있으니깐 그게 안 되지. 리하고는 별개의 문제라. 그래 무슨 천주교로 하여금 신창리 개발 할 때 돈 대주거나 하는 건 전혀 없어. (고◎◎, 남, 비신자)

천주교에 모임들과 마을 모임 관련이 전혀 없다. 마을에 지장을 주는 것은 없었다.

현재는 천주교에서 좋은 일 하는 것은 없고 포교활동만 하고 있다. (고◇◇, 남, 비신자)

그리고 천주교인들에 대한 비신자의 인식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갈등이 혹 있다면 신자 아닌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이야기를 하지. 조금 신자가 실수를 하면 “성당에 가는 사람도 경 허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신창성당 평신도협의회 관계자 좌■■■, 남)

내가 불교신자라부난 그런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천주교 신자들이 교인이라고 부르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범이 되어야 할 거 아냐? 내가 보기엔 다른 사람들 보다 더한 거 많아.

(질문) 그래도 여기 성당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분이야 좋지. 자랑스럽잖아. 요번에 본당 50주년 기념식도 하고. (신창리 관계자 강□□, 남, 비신자)

이처럼 일반인들이 천주교 신자라면 ‘이러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갈등이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신자와 비신자, 그리고 성당과 지역사회 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천주교의 전래는 신자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화합에 영향을 미쳤으며, 신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 등에 의하여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비신자이더라도 성당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좋았다.

2. 주민교육에 기여

천주교의 지역화 과정에서 신창 지역주민들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도 했다. 이는 교회 내부의 필요에 의한 교육의 실시와 지역 내에서의 제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먼저 성당에서의 교리교육을 통한 한글교육이다.

가톨릭의 영향이 참 대단했어. 정말로. 일단은 계몽 시켰어. 문맹자를 없애준다거나 계몽 시켰지.

(질문) 교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도 글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문맹률이 낮은 이유가 되나요?

그렇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암기를 했지만. (신창성당 출신 교○○ 신부)

(질문) 지금 신창 분들이 글도 잘 읽고 거의 다 잘 쓰시고 이런 이유가 천주교 교리 공부의 영향이 큰 것입니까?

그렇지. 어쩌면 그런 것도 많지. 할머니들이 모이면 글을 못 읽잖아. 어쩌면 몇몇 분들은 예전에 가르쳐 주기도 했었어. 수녀님들이랑, 신부님들이랑. (신창성당 평신도 협의회 관계자 좌■■■, 남)

이처럼 성당에 다니기 위해서는 성경이나 교재를 통한 교리교육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문맹자들을 위한 한글교육도 실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문맹률이 낮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신창지역에서 천주교가 실시한 교육사업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이다. 1985년 9월 <신창 성이시돌 유치원>이 개원했다. 유치원이 개원할 무렵 한경면에는 고산에 유치원 하나만 있었을 뿐 (신창성당 평신도협의회 관계자 좌■■■, 남 면접 내용),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교육시설 또는 탁아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신창성당에 부속되어 있는 <신창 성이시돌 유치원>이 개원하면서 신창을 비롯한 한경면 전체 아동에게 폭넓은 교육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유치원은 몇 해 전 <신창 성이시돌 어린이집>으로 변경⁵¹⁾됐다. 이는

농어촌지역에서 부모들이 낮에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기 때문에 유치원보다 탁아·보육적 성격이 강하고 좀 더 어린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지금 현재에도 한경면 전체적으로 영유아교육시설은 병설유치원 3개⁵²⁾, 법인기관으로는 고산에 1개, 저지리에 1개가 있으며, 법인외기관으로는 신창에 위치한 성이시들 어린이집 1개, 합해서 6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서 유아교육기관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서 <신창 성이시들 어린이집>은 지역 유아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현재 어린이집의 원아 구성은 한경면 전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85명의 원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이는 한경면 전체 0~6세 인구 518명 중 약 16.4%에 해당하고 있다. 0·2세의 영아의 경우를 제외하면, 3~6세 인구 314명 중 약 27.1%의 유아들이 <신창 성이시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⁵³⁾ 하지만 최근 한경면의 전체적인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신창 성이시들 어린이집>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경면 지역에 유아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기회의 확대를 가져왔다.

51)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교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교육법(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이전의 학교시설로서 취학적 사회성과 인성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시설이며 교육부 소속이다. 만3-6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가능하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아 혹은 유아 들의 보호 및 탁아 개념으로의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 소속이다. 최근 교육적 성격이 강해지고는 있으나 유치원의 교육과정과는 상이하다. 0세-취학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하다.

52) 현재 신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저청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으며 각 유치원의 원생은 10명 이내이다.

53) 한경면 영유아 인구 통계 (2006.12.31 기준)

나이(세)	0	1	2	3	4	5	6	합계
인구수(명)	76	61	67	87	62	88	77	518

3. 주민생활의 편의 도모

천주교가 전래 된 후 신창성당이 지역에 미친 영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생활에의 기여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민활동과 문화생활기회의 제공, 성당 시설의 이용, 그리고 독거노인 반찬 배달 사업 등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구민활동이다. 과거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신창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국 등지에서 구호물자가 들어오거나, 그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 많이 노력하였다.

미군정을 거쳐 한국전쟁을 치루고 난 후 미국에서 들어온 구호물자가 성당과 교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급된다. 이는 미국 가톨릭 복지협의회(NCWC)의 전쟁구호 위원회(CRS)⁵⁴⁾를 통한 원조가 이루어졌는데, 전쟁이 난 1950년 한 해 동안 미국의 각종 종교단체, 민간 구호 단체로부터 들어온 전체 구호금품은 총액이 2백 8십만 달러였으며, 그 가운데 200만 달러 이상이 NCWC의 몫이었다. 1953년 6월까지 한국 전쟁 기간 동안 NCWC가 한국에 보내주었던 모든 의약품과 의류의 양은 금액으로 환산하며 1,13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1946년 이래 휴전 직후인 1954년 1월 NCWC가 보내준 구호품과 구호금 총액은 2,5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액수였다.⁵⁵⁾ 그 이후로도 미국에 의한 구호물품을 많이 보급되었다. 이는 천주교가 사회복지 발전에 가장 기여한 시기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이 1950~70년대에 걸쳐서 195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46% 정도에 이르러 전후 복구과정에 가톨릭계 원조기관의 도움과 이를 통해 동원된 물질적, 인적 자원이 가장 큰 평가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⁵⁶⁾

54) 문규현, 전계서. p.228 미국 가톨릭 사회복지협의회(NCWC)는 1917년에 설립 되었다. 이 중 전쟁구호위원회(CRS)는 2차 대전 중인 1943년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전쟁 포로와 난민 및 빈민들을 돕기 위해 조직 되었다.

55) 문규현, 전계서. p.235

56) 김재득 외, 전계서. pp.219~220

<표 12> 천주교가 사회복지 발전에 가장 기여한 시기

구분	비율(%)
1950 - 60년대	23.1
1960 - 70년대	23.2
1950년대	15.3
1980 - 90년대	7.7
1950 - 70년대	7.7
1960 - 80년대	7.7
1970년대	7.7
1980년대	7.7
1990년대	7.7
합계	100.0

자료 : 김재득 외, 전제서. p.220

특히 신창성당은 1957년 부임한 미국 출신인 양 하워르드(H.Eisel) 신부의 부임으로 그를 통하여 미국에서 직접 들어온 더욱 많은 구호물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향후 수년간 이러한 보급은 계속 되었다. 이에 대해서 면접 대상자의 구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때까지도 상당히 어려울 때야. 1957년 본당 승격되면서부터... 그전에는 다른 신부님 계셨고. 그 양반(양 하워르드 신부)이 많은 일을 하셨지. 그 분은 미국분이셨는데 그 분을 통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구호물자가 들어왔었지. 아주 대대적으로 미국에서 직접 신부님을 통해서 구호물자가 들어왔는데. 그때 그 당시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을 때야. 못 먹을 때. 못 살 때. 그때 구호물자를 주면서 신자들을 많이 확보를 했었지. 그리고 강냉이 죽 썰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고 했지. (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

그 옛날에는 먹을 게 없었지. 쉽게 말하면, 여기서 주로 국가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도 신부님이 직접 미국에서 오는 거니깐 그 물품을 여기서 자기가 나눠주겠다 그래서. 밀가루, 강냉이가루, 우유 같은 것, 구호품들, 옷 같은 거 신발 같은 것을 교회에서 많이 나누어줬다고 볼 수 있지. 죽도 끓여주고. (신창성당 평신도협의회 관계자 좌■■■, 남)

6.25 때, 그때 상당히 굶었잖아. 미국에서 구호물자가 많이 들어 왔잖아. 성당으로 해서 구호물자를 많이 나누어 주었지. (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

양 신부 이야기와 결부가 될텐데, 그 때 우유통 큰 드림통 같은 걸로 여남은개씩 가져 와가지고 천막을 쳐서 죽 쑤어주고, 강냉이 이런 것들을 아침 또 오후에, 오후에는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먹도록 했고, 아침에는 조반 못 먹는 분들에게도 낭푼이 그릇 들고 오면 퍼주고 거기에서 먹도록 했어. 또 입는 옷까지. (양▲▲, 남)

이와 같이 먹을 것이 부족하고 최소한의 삶을 살기에도 생필품조차도 부족했던 과거 1950~60년대에는 이처럼 미국에서 원조되어 온 구호물품을 성당을 통해서 많이 나누어 주게 되었고, 지역주민들은 힘든 생활 속에서 이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는 천주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좋게 하여 이 시기 교세확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른 한편, 구호물품을 주민들에게 보급함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일 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신창지역은 농토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많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성당에서는 사람들에게 일을 주어 일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일을 시켰어. 뭐라 하나 요즘 같으면 취로사업? 공공근로? 물론 그것이 마을일은 아니지만 성당 터 뒤편에, 성당 정리정돈 하는데, 성당 매립하는데 신자들이 나와서 일 하고 하면 그거에 따라 수고비로 밀가루를 주곤 했지. <중략> 뭐 공짜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키고, 일하는 보람도 거기에 있었지. 일 하면 보수가 주어진다는 그런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준거지. (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

이처럼 성당에서 주민들에게 일 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구호물품의 무조건적인 수혜가 아니라 일을 하면 더 지급되는 조건적 수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두 번째로, 주민의 문화생활기회의 제공이다. 현재도 신창지역은 시내권과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농어촌 지역인 신창지역에서 문화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더욱 문화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

가능 했다. 그러나 성당은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모여서 조금이나마 문화적인 생활을 기회를 제공하였다.

성당에 가면 신부님들과 더불어 어울려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 그 당시 자동차가 어디 있었어? 신부님들 차 갖고 있었지. 그 당시에 영화가 어디 있었어? 신부님들이 미군부대에 가서 빌려다 보여주면서부터 많이 달라졌지.

(질문) 그 당시에 정말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었지. 오락이 없었지.

(질문)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컸던 것 같아요.

그렇지. 큰 군트럭 같은 거 빌려다가 도 일주 시켜주는 거 그 당시에 얼마나... 돈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신부님이 미군부대에 가서 빌려다가 신자들을 위해서 도 일주 시켜주고. 그런 성당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됐어. 그 전에 오락시설이 전혀 없었잖아. 성당 중심으로 놀이터가 되고 거기서 서로 만나면서부터 서로 깨우침을 받았고. (신창성당 출신 고○○ 신부)

이처럼 과거에 성당은 지역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며, 문화생활이 전무하였던 지역에 문화와 여가생활을 제공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단체로 영화를 상영한다던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도 일주를 하고, 그 외에 특별히 모여서 어울릴 수 없는 시기에 성당에 모여서 여가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2005년, 2006년에는 매주 목요일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 성경 공부’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신앙체험과 더불어 모여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세 번째로 주민들이 성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농어촌지역에서는 집에서 잔치나 장례와 같은 큰 행사를 치르게 될 경우 집에서 하기에는 공간이 비좁기 때문에 성당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이는 신자뿐만 아니라 비신자 모두, 즉 마을지역 모든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장례식장은 누구든지 사용을 하죠. 마을 주민들 다 사용하죠. 이번에 새로 지을거예요. 다음 달이면 공사 시작할텐데. 그것도 지역 모든 분들 다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신창성당 주임 김◆◆ 신부)

성당 같은 데 소위 장례식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니깐 집 비좁고 하면은 다 하지. 신자가 아니더라도 거기를 잘 이용하니깐. 경조사도 다 이용해. 잔치 같은 때에도 저 성당 빌려서 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불교 믿는 사람이든 아무라도. 천주교 장례식장에서도 불경 틀어. 관계없어. (신창리 관계자 김●●, 남, 비신자)

특히 장례를 치르게 될 경우, 특별히 마을에 영안실 또는 장례식장을 갖춘 병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신창성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례식장을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한다. 성당 장례식장을 신자, 비신자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러한 시설이 부족한 지역 복지 부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비록 신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조수리에 위치한 교회공동묘지 또한 지역 주민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자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실시된 독거노인 반찬 배달 사업이다. 신창성당은 2006년 10월부터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현 신창성당 주임신부 김◆◆ 신부가 부임하면서 2006년 봄부터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봉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하여 계속 설득하면서 준비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신자 중 50명 정도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비신자 독거노인을 포함하여 60명 정도에게 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이러한 봉사를 맡아서 하는 단체는 성당의 여성 단체로서 데레사회, 바울라회, 조수공소에 마리아회, 용수공소의 어머니들 모임, 네 단체가 한주씩 돌아가면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각 마을 별로 나누어진 구역에서 일요일마다 각 구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배달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반찬 배달 사업은 어려움도 겪고 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봉사해 줘야 할 사람들이 바쁘고 이럴 때는 힘들어 하니깐 더 신자 아니신 분들을 상대로 더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어 하는 부분들, 그 분들이 봉사하는 시간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예산이 이것이 충분히 확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마련하면서 돈을 아껴가면서 만들면서 해야 되니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신창성당 주임 김◆◆ 신부)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 배달 사업은 우선 봉사할 일손의 부족과 봉사하는 분들이 농어촌지역에서 주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하여서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기도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어르신 반찬배달사업은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농어촌 지역, 특히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당국이나 다른 기관, 단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천주교가 담당함으로써 노인들 나아가 지역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보다 활성화 시키고 확대하여 나가기 위해서 향후 재정적인 부분의 확보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등과 같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결과, 과거 천주교 교세가 강했을 때에 비해 최근 교세가 약화됨에 천주교에 의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도 축소되었으나, 천주교가 신창지역에 지역화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현재까지도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제주도 서부 지역인 한경면 신창리에 위치한 신창성당은 1935년 초등학교 교사 안병호의 전교에 의해 공소가 설립되었고, 1952년에 본당으로 승격하여 제주도에서 세 번째로 본당이 설립되었다. 이후 천주교가 지역사회에 정착하면서 지역 안의 최대 신자가 전체 지역 인구의 60~70% 정도가 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배출된 신부와 수도자들도 지역의 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많다. 즉, 제주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신창 지역에서 천주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신창지역은 현재에도 인구대비 천주교 신자 비율이 약 40%가 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약 10%)과 제주도 평균(약 10%)보다 4배 정도가 높다. 이러한 천주교의 교세 확대는 지역사회에도 여러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교세가 강하게 나타났던 신창 지역에서의 천주교의 성장과 지역화, 그리고 천주교 지역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신창지역주민들과 신창성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특히 구술 생애사 대상으로 신창성당 용수공소에 박 수산나 할머니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먼저 박 수산나 할머니(82세)의 생애를 보았을 때, 박 수산나 할머니는 결혼을 하고 21세에 천주교 신자가 된 이후 60여 년의 세월을 신창성당 용수공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27세의 나이에 공소전교회장을 맡은 후 현재까지도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다. 그리고 박 수산나의 할머니의 노력으로 신창성당의 교세는 할머니가 거주하는 용당·용수 지역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게 되었다. 이처럼 박 수산나 할머니는 초창기 신창성당의 정착과 교세의 확대, 더불어 현재까지 신창성당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창성당이 지역에 정착한 후 교세가 크게 확대 될 수 있었던 원인을 심층면접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원인으로서는, 1950~60년대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구호물자가 성당을 통하여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성당으로 모이게 되었다. 예전에는 농어촌 지역인 신창지역이 지역적으로나 생활여건이 많이 열악하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했기 때문에 성당이 지역주민들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고, 1970년대 미신행위를 금하던 정부시책 등에 의해서 교세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점은 신창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950~70년대 천주교 교세가 확장하게 되는 이유이다. 둘째, 신창 지역주민의 의식적인 부분으로서, 성직자 또는 천주교에 대한 좋은 인식에 의하여 신자수가 점차 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주민이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 지역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을 성당으로 향하게 하였고, 사제·수도자의 많은 배출에 따른 그 영향으로 교세가 확대되었음을 심층면접의 결과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신창지역에서 천주교가 지역화 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공동체의식 형성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식개선·계몽 그리고 주민화합에 기여를 하였다. 둘째, 주민교육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교리교육을 하면서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의 개원으로 지역 유아교육 기회의 확대를 가져왔다. 셋째, 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한 부분으로 구호물품 등에 의한 구민활동,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공간이 되기도 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장례식장 등 성당시설 활용,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배달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천주교의 지역화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제주도 신창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창리 지역이 신창성당의 본당이 위치해 있고 신창성당 관할 지역 중 교세도 가장 강한 지역이나, 본 연구가 용수리의 용수공소 박 수산나 할머니의 구술 생애사 연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면접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나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 신창리에 국한된 경향이 있어, 신창성당의 다른 관할지역(두모, 낙천, 용수, 용당, 조수, 저지, 판포, 한원, 금등)의 사례를 많이 살펴보지 못했다. 둘째, 신창성당이 처음 신창지역에 뿌리 내리던 시기와, 1950~60년대 교세가 많이 확대 된 시기 때의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생존해 있더라도 고령의 나이여서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셋째, 천주교 신자와 비신자 간에 천주교에 대한 인식, 서로간의 갈등 등

의 문제에 대하여 설문조사 등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몇 명의 심층면접의 결과를 통하여 살펴보아, 이들의 응답내용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신창성당의 교세는 신창지역의 경우 전체 인구수의 40%가 천주교 신자로 조사되어 그 교세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었으나, 그 영향을 여전히 크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들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연령층이 많고, 지역의 젊은이들이 도시화로 인해 도시로 떠나 젊은 신자들이 거의 없어 성당운영에 큰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이 문제는 신창성당 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성당에서 겪는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신창성당이 지금의 사목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함께, 신자·비신자 구분 없이 더욱더 지역주민과 함께하고 그들의 공동체를 돈독히 할 수 있는데 기여하는 천주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신창성당의 향후 사목 방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한국천주교회에서 현재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받아들여 농어촌지역의 성당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주민을 위한 사목의 올바른 방향 등에 대하여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강재언(1990), 「조선의 서학사」, 민음사.
-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2005), 「한구교육의 지역화 연구 1」, 교육과학사.
- 김옥희(1980), 「제주도 신축년 교난사」, 천주교 제주교구.
- 김응렬(2001), 「사회조사방법론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재득·박문수·박일영 외 공저(2004), 「천주교와 한국 근·현대의 사회문화적 변동 : 평가와 전망을 위한 전문가 조사보고서」, 한울 아카데미.
- 김중서(2006), 「종교사회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현아(2004), 「전쟁과 여성」, 여름언덕.
- 문규현 신부(1994), 「민족과 함께 쓰는 한국천주교회사 Ⅱ」, 빛두레.
- 박재형(1993), 「삶의 희망을 준 목자 맥그린치」, 성 황석두 루가서원.
- 유홍렬(1990), 「한국천주교회사 上」, 가톨릭출판사.
- 윤민구(2002),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 국학 자료원.
- 윤선자(2002),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경인문화사.
- 윤택림, 함한희(2006),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구술사 연구 방법론」, 아르케.
- 이만열(1997), 「한국기독교수용사연구」, 두레시대.
- 이원규(2001), 「종교사회학의 이해」, 나남.
- 이원순(1983), 「한국천주교회사」, 탐구당.
- 전동성당 100년사 편찬위원회·호남교회사연구소(1996), 「전동성당 100년사」, 천주교전주교구 전동교회.
-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2001), 「제주 천주교회 100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한국교회사연구회(1997), 「제주 복음전래 100년사 자료집」, 천주교 제주교구.
- 조광(1988),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 최석우(1982),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서울:한국교회사연구소.

- 표인주, 염미경 외 공저(2003), 「전쟁과 사람들」, 한울.
- 표인주, 염미경 외 공저(2005), 「전쟁과 기억」, 한울.
- 한국구술사연구회(2005), 「구술사-방법과 사례」, 선인.
- 한국문화인류학회(2003), 「처음 만나는 문화 인류학」, 일조각.
- 한국산업사회학회(2003),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 「초기 본당과 성직자들의 서한 (1),(2)」, 천주교 제주교구(1997).
- 「신축교안과 제주 천주교회」, 천주교 제주교구(1997).
- 「광양본당 30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광양교회(2000).
- 「동문본당 33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동문본당(2003).
- 「서귀북자성당 30년사」, 천주교 제주교구 서귀북자성당(2000).
- 「서문성당 20년」, 천주교 제주교구 서문교회(1997).
- 「신제주본당 15년사」, 천주교 신제주교회(1996).
-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2003), 「진실과 화해」, 도서출판 각.
- _____ (2003), 「신축제주항쟁자료집 1」, 도서출판 각.
- 샤를르 달레(1990), 「한국천주교회사 上,中,下」, 한국교회사연구소.
- 참고논문 및 간행물-
- 강경미(2005), “제주도 초등 사회과 지역화 교수·학습에 관한 연구 : 3,4학년 지역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강석효(2001), “진주지역 기독교 전래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 금경숙(2002), “강원도 영서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수용에 관한 고찰”, 「박물관지 9호」,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 김동소(1997), “영남지방 천주교 전래와 ‘한티’”, 「한국전통문화연구 12집」.
- 김두욱(1999), “제주도 외래종교의 공간적 확산과 수용배경”,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옥희(1987), “제주도 천주교의 수용 전개과정”, 「탐라문화 제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2003), “초기 한국 가톨릭교의 평신도 영성”, 「신학과 사상 45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_____ (1980), “제주도 천주교 교안사”, 천주교 제주교구.
- _____ (1982), “천주교의 전래와 그 수용”
- 김용만(1986), “사회과 교육과정 지역화의 이론적 배경과 접근법”, 「사회과교육」 제19호, 한국사회과교육회.
- 김주섭(1996), “천주교 신앙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안성지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노용필(2003), “1930년대 ‘한국사회에 미친 천주교의 영향’ 논의 : 주요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27권」, 한국근현대사학회.
- 박일영(2004), “한국 가톨릭에 대한 일반인의 종교적 인식에 대한 연구”, 「종교교육학 연구19」.
- 박찬식(1995), “한말 천주교회와 향촌사회-교안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_____ (1996), 천주교회의 성격과 ‘교안’”, 「교회사연구11」.
- _____ (1991), “제주교안에 대한 일검토 -소위 ‘三義士’의 활동 중심으로-”, 「제주도연구8」.
- 석창훈(2003), “천주교의 경상지역 지역전파와 유교와의 갈등”, 「인문과학 16집」,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손숙경(1998), “조선후기 경남지역의 초기 천주교 수용자들과 수용형태: 언양지역의 사례 연구”, 「부산사학 34권 1호」.
- 양철호(1997), “천주교의 전래가 제주 근대여성교육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엄미경(2006), “지방사연구에서 구술사의 활용현황과 과제”, 「역사교육 제98호 별책」, 역사교육연구회.
- _____ (2006), “지역화와 지역정체성, 그리고 지역화 교육의 방향 :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38권 제2호.
- 오지은(1990), “천주교 교우촌 공동체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동의 사례”, 서울대학교.
- 윤주병(1987), “선교지방 교회공동체 안에서 교리교사의 신원과 역할” 「가톨릭대학교 논문집 13호」, 가톨릭대학교.

- 이원순(1986), “조선말기 사회의 ‘교안’ 연구”, 「한국천주교회사연구」,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 이원심(2005),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지역여성의 역사 : 경북 영양군 한티리의 세 여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원희(2001), “원주, 횡성 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정착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이정주(1999), “제주 ‘호미’ 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 ‘4·3’ 경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향남(2005),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참여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임경택(1989), “천주교 신앙촌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 천주교 토착화 연구를 위한 논문”, 서울대학교.
- 조재연(2004), “본당 청소년 사목의 새로운 모델 : 작은 공동체”, 「사목연구 13집」,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사회교육연구회(2006), “천주교의 성장과 토착화”, 「제대사회과교육22」.
- 천혜숙(1995), “여성생애담의 구술사례와 그 의미 분석”
- 최병옥(1988), “조선후기 천주교의 수용과 그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최상용(1988), “천주교 교회 사업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허영선(2006), “제주 4·3 시기 아동학살 연구 : 생존자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사회사목의 평가와 전망”, 「사목연구 9집」, 가톨릭대학교 출판부(2001).
- 「제주평협 11호」, 천주교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2006.12).
- 「훈디모영 16-소공동체 소식지」, 천주교 제주교구(2007.3).
- 「향토지 - 한경지역」(1987).

ABSTRACT

Regionalization of Catholic And Influences on Community : A Case Study of Shinchang Area in Jeju Province, Korea

Kim, Kyu-Ri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eum, Mi-Gyeong

The Shinchang town is located in the western provinces of Jeju State. The Roman catholic church of that Shinchang area has more positive effects on their communities than any other places. Actually the church was established in 1935 as a tiny church began. After that the church floated a parish church that was integrated in the third. At that time the maximum Christ believer was charged at 60~70 percents of the entire population of the district. Also priests and any other prayer such as ascetic, Cordelier and nuns came out of this area. Of course, the number of priests and nuns are very high for that area's scale. Therefore the expansion of the religious influence was enormous as compared with other provinces situation.

Through these studies, I would like to know the process of how to grow that church and how to be a good influence on that community.

I usually used three methods to get the results - the research of documents, depth interview, and the oral life history was executed with Susana Grandmother who lived in Yongsu church as the destination.

As the results of the study, there are obviously three reasons why the total number of Christians in Shincang grows up and expands steadily.

The first reason is that in the nineteen fifties to sixties (1950-1960) the Shinchang church accepted relief supplies and charity from America, so many people get together into there. The second reason is related with the number of quit a few of the priest and nuns. The last reason is the good understanding and positive features of the Roman Catholicism that makes people come to Shinchang church.

After research I thought it's the natural outcome from these historical materials.

Also I get to know where another reason is how to be influence on communities. Most of all, the church helps many residents open their eyes such thinking about improvements and enlightenment and to be in harmony with together. The second reason is expansion of infant's school and nursery school in church. It brings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its local society. The third one is that church services one of the welfare parts such as social and educational program, and people used the spare space of that church for funeral parlor. In addition the church took an active interest in business of a dish delivery for an aged person.

Recently, 40percents of the population is a believer. Decreasing the number of Christians in Shinchang church, the influence is still mighty.

However, we cannot help notice some problems which are the most of believer is the older and the young leaves for cities. Then so many church has a difficult keeping up their operating system. It's not limited to Shinchang church. Therefore we have to look for good solution throughout the country if you are the one of the Catholic believers in Korea.

부 록: 구술 생애사 면접 부분 표준어 번역본

<1>

우리 시아버님은 젊었을 때부터 믿었었어. 나는 시집 온 후에 영세 받았고. 스물 하나에. 스물한 살에 제주시 중앙 성당에서 혼배식도 하고, 영세식도 하고 했어. 옛날에 제주시에 가서 혼배미사 하는데, 그 때 돈으로 2원 드려서 미사 드렸어.

<2>

대정면 무릉에 우리 할머니가 사셨어.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4·3 사건 때 소개(疏開)해서 폭도들 때문에 신창에 왔지. 그리고 또 용당에 와서 살았어. 그리고 저기 공소를 지었어. 25평 되는 성당을 지었어.

<3>

한림성당은 우리 고모님이 교회 세웠어. 마리아 할머니가 소개(疏開)해서 와서 한림 가서 상점 조그맣게 했거든. 그 곳에서 학생들 영세시키기 시작해서 그 후에 거기 큰 집을 지었지. 우리 고모님이 그 집 짓고 갔어.

<4>

(질문) 할머니가 전교회장 하셨던 거예요?

응. 전교회장 했어. 월급은 옛날에 임 신부님(임피제 신부) 있을 때 밀가루 한포씩 주다가, 그 다음에는 월급 없이 그냥 봉사로만 살았어. 그래서 늙으면 좀 사는데 도움을 줄까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하. 예수님한테만 가겠지. <중략> 우리 신랑이 시아버님이 하던 용수공소 일을 하다가 내가 스물일곱 살에 죽었어. 그래서 내가 전교회장을 맡아서 스물일곱부터 다녔지.

(질문) 그러니깐 시아버지 하다가, 할아버지 하다가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아니. 시아버지 살 때부터 했지. 신랑 죽으니깐. 신랑이 회장 하다가 죽어서 그 발자국... 그냥 그 다음으로 다녔어. 그 때는 밀가루 한포씩 주면 아이들 먹이고 했는데. 그 봉사를 여든하나 까지 했거든. 여든한 살까지 했어. 청소도 다 내가 하고. 차리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내가 했어. 여든하나 까지. 여든하나 넘으니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데 보면 마음에 맞지 않기도 해.

(질문)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신랑은 주사 잘못 맞아서 죽었어. 병원장 데려와서 주사 잘못 맞았어.

(질문) 옛날에는 주사 잘못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 많았죠?

응. 그래도 우리 영창도 안 보내고, 약 값도 다 냈어. 믿으니깐. 원망하지 말라고 하니깐. 나 스물일곱이고, 곧 서른에 신랑은 주사 맞고 죽었어.

<5>

저기 고산 교회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산은 지었거든. 그래서 감사장도 탔어. 고산은 내가 처음 다니면서 다섯 사람 전교 했어. 내가 고산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이야.

<6>

난 용수에 나와서 용수만 책임져서 전교 했거든. 용수 전교 하다가 고산 다니면서 전교 하면서 고산교회만 지었어. 우리 시아버님이 여기서 청수 가서 몇 달 살다가, 남의 집에 살면서 청수성당 지었고. 마지막으로 조수 가서 성당 세우고 여기 앉아서 살다가 죽었어. 그러니깐 고산은 내가 가서 세우고, 여기 와서 조수하고 청수는 우리 시아버님이 다니면서 세웠어.

<7>

(질문) 옛날에 6.25 끝난 다음에 많이 어렵게 살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구호물품들 줬잖아요? 밀가루랑...

응. 밀가루 하고 옷.

(질문) 그런 것들 다 성당에서 나눠 준거예요?

응. 그랬어.

(질문) 그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때는 죽도 썬서 주고 하니깐 그렇게 하려고도 했어. 가난할 때니깐. 그래서 죽도 썬서 먹이고 그랬거든. 가서 타오기도 하고.

(질문) 그래서 성당에 다니시기 시작한 분들도 계셨죠?

응. 그때는 강냉이 배급도 주고. 밀가루 배급도 주고 그랬었거든. 성당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했었어.

<8>

이렇게 앉아서 명칭하게 보여도. 이거였어.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우리 용당, 용수에서.

그리고 고산도. 그 때 돌아다닐 때 가서 여섯 사람 이름을 올려서 임 신부님한테 여섯 사람 믿을 거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어. 그래도 해달라고 하니깐... 임 신부님은 내 내력을 잘 알아.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 그 때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고, 죽도 썰서 먹이고, 밀가루도 주고 할 때니깐. 그 때는 가난 했으니깐. 그 때는 신창 걸어가서 미사 참여하고 했었어. 난 옛날에 신창 하루에 세 번씩도 왔다 가고 했어. 아침에 새벽 미사 참여해서 온 다음에 일도 하고.

<9>

촌에는 전교하기가 힘들어. 노는 사람들이 없어. 일 하고 있으면 같이 일 하면서 도리 이야기 하고 하면서 옛날에는 전교하고 했는데. 이젠 그냥 가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해도 안 돼. 밤, 낮 돌아다니니깐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중략> 부지런히 다녔지. 밤낮 다녀도 귀신도 못 만나고. 무서운 것이 없었어.

<10>

내가 용수에서 700 사람 가까이 영세 시켰어. <중략> 용수 교우가 아주 많았거든. 내가 한번에 51명 영세 시켜서 상도 탔었어.

<11>

저거(용수공소) 50, 60평으로 지었어. 내가 신부님한테 사택 지어달라고 안 할테니깐 공소만 크게 해주라고 해서 공소를 크게 지었어. 61년에 시작해서 63년에 끝났어. <중략> 그래서 옛날에는 저 집(공소) 지을 때 내가 마을 부인회장을 하니깐 돌맹이를 용수 마을에서 다 갖다 주니깐 저 집도 지었어. <중략> 여자아이 하나 데리고 목수들 밥 지어 먹이면서 성당을 지었어.

<12>

그러니깐 내가 돈은 어떻게 벌었냐면, 돼지 길러서 새끼 낳고, 소 길러서... 풀 베서 주면 새끼 낳고. 그리고 남의 밭 2000평을 병작했어. 반 나눠서 곡식도 기르고 했어. 그러니깐 몸이 너무 병신 됐어. 옛날에는 짐을 많이 졌어. 기운도 좋고 하니깐.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젊을 때는 용기도 있고, 기운도 있고 하는데 늙어서 다리, 몸 다 파스 붙이고... 움직이지를 못 해.<중략> 그러니깐 우리는 옛날에는 아침에 신창 가서 미사 드려서 온 다음에 아홉시에 일 갔다가 다섯시쯤에 집에 와서 목욕하고, 마루 닦고 해서 나가면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전교 했어.

<13>

옛날에 우리 60명이 새벽송을 돌아다니니깐, 용당·용수를 다 돌아다니니깐 아침 6시까지 새벽송을 돌아 다녔었어.

<14>

우리 용수가 고산에 붙을 거였는데, 나 때문에 저기(신창)에 붙었어. 그 때 용수사람, 용당 사람 가르고 할 거여서 내가 신창에 붙어 버렸어. 그러니깐 용수가 신창에 왔어. 원래는 고산에 갈 거였는데. 내가 고산에 붙으면 용당 사람들이 공소가 없어지니깐, 그래서 내가 신창으로... 아님 여긴 원래 고산 지역이야.

<15>

요즘도 이렇게 아파도 여기에 사람한테 가서 한 달 동안 기도해 주고, 가르치고 해서 죽어갈 때 영세 받고 돌아갔어.

<16>

그러니깐 여든하나 되도록 성당 청소하고, 봉사하고 한 것이 이젠 여든 둘 돼 버리니깐. 풀 베는 것도 금년까지는 해도 다음은 못 하겠어.

<17>

이제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기도 하고, 교황님, 주교님, 신부님, 수녀님 다 기도하고. 기도 서 너 시간 하고 있으면 해가 떠. 목주신공 다 5단씩 하고, 가정기도 하고 그렇게 해. 새벽에 세 네 시에 일어나서 한다.